

제41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추가)
-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추가)
-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추가)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
2.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6
o 소위원장(최형두·김현·정동영·김장겸) 인사	1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
3.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8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
4.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19
5.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19
1.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26

(16시16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의석에 과방위 편람과 AI 정책자료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21대 과방위 운영과 AI 정책현안을 점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전체 모였을 때 안 계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정부 부처의 각료분들께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최형두 간사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들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오늘 참으로 이례적이고 국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과방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법 56조는 본회의 중에 위원회 개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가장,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회의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이 국정의, 우리 국회에서 나오는 현안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있는 중에 지금 위원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법 56조를 보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회법 어기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KBS 사장 불출석의 건으로 고발할 때도 그건 안조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안조위 대상임이 확인되니까 최장 90일 동안 숙려하도록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완전히 말살하고 90초 만에 해치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국회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표결하고 대정부질문하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회법 56조의 예외사항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모여서 다 올린다고……

국회의장이 이걸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엄중하게 따질 겁니다. 저는 원내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이런 협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고 더구나 본회의의 권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위원장 최민희 저희 허락받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태고, 그러나 저희들이 온 까닭은 오늘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요 국가 기관장들에 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또 허위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참석했습니다만 제발 이렇게 국회법을 파괴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진행은 삼가 주십시오. 이건 국회의장에게도 심각하게 따질 겁니다.

.....
○위원장 최민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2분 드리세요.

시작하십시오.

○김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제5차……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마이크가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눌러 보십시오.

지금 오류 생겨서 이걸로 하십시오.

○김현 위원 지난번 일주일 전 저희가 5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회의진행 과정에 최형두 간사님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저 김현이 잠시 소회의실에 나가서 오늘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개최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개최 사유 중의 하나를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을 하는 걸로 논의를 했고 어제까지 함께 소위 구성안을 확정을 지었고 참고인 한 분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어저께 논의하고 그 일주일 전에 논의한 것은 당연 오늘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과방위원장 회의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소집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지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은 참 도망을 잘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크게 알려진 것은 두 번째입니다. ‘런종섭’에 이어서 이번엔 ‘런홍일’입니다. 탄핵이 될까 두려워서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의 불을 질러 놓고 도망간 방화범 런홍일을 국민은 오늘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책임 또한 국민은 물을 것입니다.

지난 25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악의 평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학살한 병사들의 죄 유무,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광주시민들에게 발포한 계엄군의 죄 유무, 과연 김홍일 위원장의 잘못된 지시에 동참해서 방송의 입을 틀어막은, 국민들을 대표해 항의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틀막을 한 방통위 직원들은 언론 장악에 가담한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합당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현장에서 ‘위에서 들여보내지 말라 지시했다’라는 관리과 상황실장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방통위에서 나온 지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런홍일을 도와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 그나저나 잘들 다 도망을 가시는데 런종섭, 런홍일에 이어 런석열 대통령은 도망 안 가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

○박정훈 위원 저희 반론권 주셔야지요. 저 말에 대한 반론권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민희 드립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박정훈 위원 저희 쪽 반론을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드릴게요. 박정훈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원회가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원회가 도망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통위가 과행으로 진행되어 온 책임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의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 2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방통위원회를 탄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방통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와 사퇴 수용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통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통위 과행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만 돌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 명백하게 밝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진행될 방통위원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잠깐만요, 이것 세워 주시고.

현재 오른쪽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선 마이크로 발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저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듣고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치고 도망가면 요즘 표현으로 ‘run’, 런한다고 합니다. 이동판 전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 문제부터 시작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방송 장악의 도구로 쓰이다가 결국 런 했습니다.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쓰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런 했습니다. 한 인간이 지조와 자기중심, 자존심과 명예, 양심과 도덕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DJ DOC의 노래 ‘Run To You’가 생각납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어디로 런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죄짓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국회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국민 속만 뒤집힙니다. 양옆과 뒤는 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식 국정 운영, 국민의 눈과 귀를 닫는 방송 장악,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죄는 남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설마 했던 기형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끝내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폭거에 맞서서 우리 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엄중한 수사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이에 관여한 자들까지 명명백백하게 혐의를 밝혀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지요? 발언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기요.

발언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자는 것 없이 여기서 기자회견 하고 성토하면, 기자회견 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충분히 모두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의사진행발언답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답게.

○**최수진 위원** 저는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저희가, 지난 6월 25일 과방위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로 인해 저희 여당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의 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6일 날 총 다섯 번에 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위반하셨는데 이는 국회 의사과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방위의 김건오 수석전문위원님이…… 나가셨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법 제107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역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제

6장·7장의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국회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라고 할지라도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이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간사 위원장과 자리를 바꿔서 직무대행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까지 황정아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김장겸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마이크 써야 되지요?

아, 나옵니다. 제가 시작하니까 마이크까지…… 아, 이것 시간 지나가는데.

일단 무법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 행태를 이끌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간 게 좀 전에 앞서 말씀 나왔듯이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계획안 처리를 불법적으로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야당 위원들이 과천 방통위에 갔어요. 항의를 갔는데 그런데 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으려고.

그것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2024년 6월 28일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통위 출입을 통제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지,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밑의 거예요. ‘방통위 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어서 사무처장이 과천 청사 관리소장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방통위 업무 담당자가 출입 확인을 해 주지 않아 방문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저런 식으로 방통위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김현 간사실과 방통위 협력관, 국회 협력관을 통해서 그 전부터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방문을 하기로. 그리고 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거의 뭐, 이 역시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방통위 운영해 왔듯이 다시 한번 이런 정말 무도한 행태를 했습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보면 죽 다 나와 있습니다, 제17조에. 제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국회의원도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에 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을 밖에 세워 놓고 또 답변을 받아 보니까 방통위원회는 이런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이런 조치를 실제 실행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해 주시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는 김장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저는 회의 시작에 앞서 이훈기 위원에게 저에 대한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치 이해충돌로 이 과방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저의 MBC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형사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전부 법사위에 몰려 있어서 이재명 로펌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이훈기 위원이 저에 대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 많이 배우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몸담고 오랫동안 있었던 언론노조나 MBC나 등으로부터 무슨 압박이나 요청이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생각이 그렇다면 소통관에 가셔 가지고 법사위에 가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다 회피하도록 그렇게 기자회견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고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 보니까 지난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SK텔레콤 등 통신 관련 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인데 이익단체입니다. 과연 과방위에 계시는 게 맞는지, 어떻게 절차는 제대로 거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현 간사께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예,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긴급안건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후에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임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은 MBC 장악, MBC 민영화의 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MBC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김장겸 위원 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피감기관과 관련된 MBC와, 여기 계신 분 중에 피감기관과 소송에 연루된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MBC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하시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과방위에서 빠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괜찮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사위에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제가 마이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무슨 발언을 하건 그 부분은 이게 큰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 앞으로 마이크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 삼가 주십시오.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누구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명백한 언론 장악 쿠데타이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협잡입니다. 용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김홍일 위원장은 즉각 탄핵되어야 됩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017년도에 받은 법률자문 의견서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A 법무법인의 소견입니다. ‘균형과 견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추천 할 수 있는 위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 이후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B 법무법인의 입장입니다. ‘위원 2인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5인 구성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의결의 적법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이 두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요약해 보면 2인 체제도 아닌 3인 체제의 의결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일 전에 회의를 통지하라는 규정마저 불법적으로 어기고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물론 관련된 자들을 중인으로 채택하여 누가 어떤 불법적인 지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에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님과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의 불법적 행태를 저지할 수 있도록 중인 채택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상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자문을 구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이런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회의 의결정족수가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의 경우 재적의 문헌적 의미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등의 해석례들을 고려할 때 공석인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무법인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법무법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여기에,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았고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에서는—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단심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에 대한 파급력, 그에 대한 신뢰성 이것은 담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적위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결정 자체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마는 ‘심판대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시다시피 13조 2항은 방통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적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재적에 대한 숫자적 제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 개최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들이 참, 단어 선택이 협약하셔 가지고. 부역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망간다, 런 한다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여러 가지 영화 제목까지 이야기하시는는데……

마이크 안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2분 지났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감 있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그러면 첫째, 과연 방통위 위원장이 사표 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방문진의 의사결정, 경영진의 지배구조 이것이 그렇게 악의적이고 잘못돼 왔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방문진의 이사회 결정, 공영방송 이사회 체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악의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우선 전제가, 그것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 최민희**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최민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입법조사처 관계자 명의로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사위 탄핵 조사는 불가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인지, 관계자라면 누구인지……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권한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의 명의로 일부 신문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자에 대한 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국민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보위를 적절히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뒷받침해야 할 입법조사처가 관계자라는 명의의 뒤에 숨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 조사권을 불가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조사처에 공식적인 질문과 문서로서의 답변을 좀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소추 대상자가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회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예를 들면 탄핵소추 이후에 사퇴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전에 사퇴를 하면 사퇴의 유효성이 있을지언정 탄핵 조사의 적절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일이라는 개인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를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사위의 권한을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아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이야기는 어떤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 입장 표명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 위원회 의사진행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것은 몇 개 있었습니다.

최형두 간사 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김현 간사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를 보다 원활히 해주시고 그 결과를 즉시 즉시 위원님들께 공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쪽의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최수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과방위원 전체 명의로 하는 건 곤란하고요 과방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손을 두드)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겠습니다.

혹시 의사일정과 관련된 건가요?

○**김현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받아들여서 과방위원장 개인 명의로 의장님께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의 무슨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얘기가 아니면 그냥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아까 손을……

○**박충권 위원** 저 기회 안 주셨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여기 체크가…… 아까 마지막에 손을 안 드셨어요.

○**박충권 위원** 아니,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박충권 위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최민희** 맞아요,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우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대표님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과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런홍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 단체로 달려가셔서 겁박하시고 입법 폭주를, 의회 폭주를 하셨기 때문에 쫓겨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야당 못 위원 추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통위를 가셨을 때 김현 간사님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님은 보안 직원을 상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이렇게 협박하셨고 손가락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보이시면서 ‘이것 어디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 국회의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다 되는 줄 아는 갑질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매우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세에 억눌려서 여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고용노동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김현 위원님의 행태가 꼭 들어맞습니다, 갑질이라는 정의에.

그래서 저는 김현 간사님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속기록에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과를 거부하신다면 국회법 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 신상발언 같은데요.

○**위원장 최민희** 예,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 최형두 간사님에게도 간곡하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의사진행발언할 경우에 상대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일로 밖에 갔다가, 저희 오늘 일정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사진행은 위원장에게 하는 건데 쌍방 위원들 간에 지금 질타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되게 안 맞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 단어, 왜곡 이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고소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얘기는 의사진행발언의 한 대목으로 이해하고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 주시길 바라고 앞서 최형두 간사님하고 지난 회의 때 약속한 바대로 위원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가 왜곡됐는지 아닌지 진실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발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상 5분 줄 수 있게 되어…… 아니, 신상발언은 5분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위원님께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신속히 의사진행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방위에는 여든 야든 지금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계신테요. 언론에 있을 때 제1 가치는 당파성이 아니라 사실은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 언론이 만개하는 세상을 꿈꾸며 언론 활동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현실은, 어쨌든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 순위를 보면 62등, 스물몇 계단을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가의 백년대계와 함께 언론 자유, 자유 언론 문제를 다루는 아주 핵심 국가기구인데 우리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 그래서…… 옥스퍼드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도 4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40등이에요. 우리나라 국격, 경제력, 문화력에 비춰 부끄럽습니다. 이걸 올리는 데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핵심은 상식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하든 친목 모임을 하든 회원이 5명이라고 치면 그래도 무슨 결정을 할 때 3명은 모여야 성립이 되는 거고 그중에 2명은 찬성을 해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고 일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2인 체제라는 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식에 기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상식에 대한 근본 성찰을 통해서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김현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숫자로 대비해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여섯 분이 하셨어요. 7명 중에 여섯 분이 하셨고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세 분이 안 하셨어요.

○김현 위원 저는 신상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김현 위원님은 신상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안건……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까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상임위가 국회법 취지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법의 어느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가 국회법 위반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참고인들이 와 계시고 또 김현 간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해명할 게 많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저희 없어도 또 민주당은 다 강행하실 테고 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4번, 5번에 보면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안건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이 양당이랑…… 4번, 5번이 이제 결의안 건인데요, 결의안 건.

○위원장 최민희 저도 아까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협의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협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협의를 드렸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협의라고 하신다면 정말 협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차례대로 하면 4번, 5번으로 하실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협의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몇 분 전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도 저간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협의하면 국회법에 이야기하는 여야 간사를 둔 취지 또 협의를 하기로 한 취지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저희들이 따져 볼 겨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 하셨습니까?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두 분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안건이고 이건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결의안은 상정할 만하다—결의안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사전에 제가 메시지…… 알려 드렸지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최형두 위원 메시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이해민 위원님과 황정아 위원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야 간 협의, 간사 간 협의의 정신인데 너무 그걸……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간사님, 잠깐만요. 제가 황정아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그럼 황정아 위원님 말씀 듣고 이해민 위원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현 간사님 말씀 듣고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라인, 어제 라인이 행정지도의 최종적인 마감, 행정지도 마감 보고서가 어제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결의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결의안을 마련했고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안을 드리는 바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으면 구두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안건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황정아 위원 예, 안건 상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같은 요구사항이고요. 더불어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면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두 분이 올리신 결의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한 분은 결의안이고 한 분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결의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회의 차원에서 그냥 의결하기에는 토론할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관련 법안소위로 넘기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사안으로 봅니다만 김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 위원** 지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할 때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 관련해서 현안질의, 제목 자체가 ‘네이버 라인’하고 ‘제4이동통신’ 관련한 거고.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도 마찬가지로 앞서 두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라인 사태 행정지도가 7월 1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7월 2일 날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본회의가 있는 기간 안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위원들이 제기한 것을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상정이 된 거고 안건으로 채택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소위 구성과 소위원회를 선출하는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형두 여당 간사님께서 소위 구성 및 소위원회 선출 건도 뒤로 미루자라고, 다음 기회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소집한 제6차, 어렵게 마련한 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해 주셔야지 이후에도 여야 간에 간사가 어떤 외부의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손을 두드림)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만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최형두 간사님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대상이 아니라 했다가 또 대상이니까 90초 만에 해치우고, 이 숫자의 힘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해 보고 싶은 것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법에서 본회의 하는 날은 상임위 하지 말자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여야 간사끼리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처음에 제가 소위를 제안한 까닭은…… 아니, 지난 몇 차례 소위도 우리 오자마자 소위부터 구성해야 되는데, 안조위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소위를 제안한 것인데……

제 요지는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라든가 상임위원회끼리 ‘본회의 있지만 우리는 본회의 가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외의 경우가 아주 긴급한 경우, 아까 세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세 가지 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에 매우 어긋나는, 더욱이 매우 중요한 국정의 현안을 다루는 본회의를 방기하고 지금 이 상임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걸 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냥 이석해 버리면 일방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정동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을 지금 찾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해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 오늘. 본회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상임위가 어디 있느냐, 그건 스스로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다음에 이제 안건, 이거는 또 제가 반대해도 강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안건의 상정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협의라는 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 문자도 못 받았습니다.

○**이상희 위원**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간사 말씀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씩 드리면 또 두 번씩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종료하고 신상발언 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현 간사님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7시04분)

○**위원장 최민희**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간사와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 우주항공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소위원 정수 및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교섭단체별 소위원회 정수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최형두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김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정동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김장겸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최형두·김현·정동영·김장겸) 인사

(17시06분)

○위원장 최민희 소위원장님들 선출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이거 참, 국회법에 어긋나는 상임위를 하면서 또 이런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민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다섯 가지 국가적 의제를 다룬다는 이런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백년대계를 다루는 상임위라고 어느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상임위에서 정말 소위를 통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의 네 분과 비교섭단체 한 분, 전체 열분을 모시고 가장 이슈가 많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방송통신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전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잘 이 현안을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동료·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최형두 위원님이 이 두 군데 다 들어가시는 게 맞나요?

○위원장 최민희 이건 제가, 여야 간사 협의사항이라.....

원래 두 군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준석 위원** 예.

○**김현 위원** 이준석 위원님도 두 군데 들어갔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도 두 군데예요.

○**이준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이해민 위원님도 두 군데고요. 아주 바쁘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두 군데……

○**이준석 위원** 아니, 법안심사소위 양쪽에 다 계시길래……

○**위원장 최민희** 대개 이게 간사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09분)

○**위원장 최민희** 2024년 7월 2일 오늘 현안질의에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3.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최민희** 그럼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배부한 바와 같이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 1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잠깐 질문.

다른 분들은 전부 증인이고 이분만 참고인입니까? 오늘은 증인 신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분 참고인입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증인이고 이분은 참고인이고?

○**위원장 최민희** 이분은 국가의 녹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형두 위원** 여기에 다들 무슨 의혹 대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다른 분들은 참고인으로 저희가 지난 과방위 때 나와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으나 나오시지 않아서 증인으로 전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다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11분)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기는 하지만 황정아 위원과 특히 비교섭단체 위원이신 이해민 위원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4.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5.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4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추가로 상정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은 뭐……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 그냥 상정된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아니에요. 설명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할 텐데요. 이해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의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일본 총무성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이례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서 국제적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 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 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언론과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을

향한 비합리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안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10억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IT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운영하며 라인을 해외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매우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마저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일본 정·재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라인 강탈을 위한 야욕을 더욱 노골화해 네이버 지우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라인 펀테크 서비스 회사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시켰습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 업무위탁도 내년 말 종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논의하겠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7명의 의

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의 검토보고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의 내용적·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고, 이례적 조치의 배경에는 플랫폼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회와 법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행정지도에는 ‘경영체제 재검토(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라인 매각을 압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결의안의 제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의안 주문 중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라는 부분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최민희 대체토론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법안,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대체토론합니다.

○최형두 위원 우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현 위원 소위로 넘기라니까. 소위로 넘기시라고요.

○최형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렇게 요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 속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야 뭐 지금 위원장님이나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내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국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 또 만일 국가가 그것을 잘못했다면 국가에 대한 질책,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를 담당할 총책임자를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

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중인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해 보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런 것인지…… 세상에 어느 정부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결의안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과 억측과 일방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이런 식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네이버-라인야후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선 네이버-라인야후의 이사회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이미 2019년 12월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3 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100% 우리 네이버 지분이던 회사가 일본 회사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은 2019년 7월입니다. 만일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 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 만나서 일본 기업의 이익에 유리하게 이렇게 결정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오늘 심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뒤에 하는 것이 국익에도 맞고 또 우리 자국 기업을 제대로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민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박민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인도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형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오늘 소위가 구성됐으니까 간사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소위로 넘겨서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과연 라인야후 사태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결의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여야 간에 협의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느 정부가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방관하겠나라는 전제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매우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의안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소위에 넘겨서 논의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민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법안을 내든 저는 무조건 이 상임위에 상정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 그리고 상정하고 이 법안을 관계 소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의 논의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결의안은 네이버와 라인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

회와 나서서 같이 네이버와 라인을 보호하자는데 이것을, 국회가 이 결의안을 법안소위에도 못 보내고 논의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하시고요, 이것은 저는 박민규 위원님 생각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 소위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 순서고 앞으로 법안 올리시면 전체회의에 다 상정해서 그 해당 소위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 대체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매출액 차이가 그때 라인이 약 2조 원이었고요, 야후 재팬이 10조 원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배가 넘는 소프트뱅크와의 통합이나 경영통합 이런 5 대 5 공동출자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손정의 대표와 문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일 감정을 들춰내고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은 네이버와 그 기업 간의 이슈들입니다. 네이버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신기술 경영의 제고를 노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여기에 계시겠지만—구글이나 MS, 야후 이런 데는 이미 OpenAI 기술에 소위 꼬리 전쟁이라고 불을 정도로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의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penAI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 개편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게 그 기업을 위해서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또 관련된 정부, 국회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바라 볼 때 단순히 AI, I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업이 망하려고 가겠습니까? 2500명을 잃으면 그 대신에 그들이 10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체토론하실 분……

이쪽 했으니까요 한민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민수 위원** 아닙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황정아 의원님과 이해민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결의안을 보면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오늘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과연 네이버라는 기업에서 이런 방향으로 국회가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맞으나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오늘 출석한 증인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게 뭐 기업 비밀도 있고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저희가 질문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 측의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간의 대응 기조는 상당히 일치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의 대응 기조가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문구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비난의 주체가 되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일본같이 능동적으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난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논조 자체는 소위에서 다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대체토론……

누구를 먼저 드려야 되나요?

○박충권 위원 야당에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어요. 대체토론 신청하셨지요?

○이상휘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준석 위원이 하신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이고요, 이해민 의원님 발의고.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님은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라인 강탈 야욕 규탄입니다.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입법권을 가지고 또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봤을 때 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법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미 올라오는 즉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신중을 기하자’는 쪽은 비애국적이고 ‘이 것을 논의에 올리자’는 벌써 애국적입니다. 이게 정치 프레임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어쩌면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인데 외교적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국가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적시했지 않습니까? 외교 참사 규명, 외교 참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다 쳐다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에 대한 행정력 이런 부분들도 좀 치밀히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협의 없이 안건으로 탁 올려 놓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합시다' 이러는 즉시 '아, 저 사람들은 결국 기업의 보호를 하지 않고 일본 편 드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대중적으로 호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두 분, 이해민·황정아 의원님께 시의적절한 결의안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는 게 한 51만 건인가요? 개인정보 유출 건이었는데 같은 식의, 일본 기업 도모코 기업인가요? 2023년 600만 건이 유출됐는데 거기는 그냥 개선책 수용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이것을 정식 문제 삼고 대응한 게 지난 5월 2일입니다. 그 뒤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논평과 입장으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관심이 높아졌지요. 우리 정부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솔직히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았어요? 일본 총무상 발언 나올 때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우리 차관 발언 때문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 빠르다고도 볼 수 없어요. 시의적절하게 나왔으니까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걸핏하면 집권당 계신 분들이 뭐 친일 프레임…… 아니,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1호라고 하시는 판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 못 팔면 있는 기업이라도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네이버 대표도 오셨으니까 들어 보고 또 결의안에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말씀 듣고요. 이해민 위원 말씀으로 이제 종결해도 되겠지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국정조사까지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가 이렇게 기업 경영에 서슴없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 10일에 네이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국회에서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간에 있는 물밑 협상까지도 추궁하고 공개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기업 기밀까지도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군사정부 때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네이버가 라인을 유지하든지 지분을 매각하든지 이것은 기업의

경영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냅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이버 측 대표의 얘기를 들어 보고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기밀 까지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4월 26일부터 짚어 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라는 나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되지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할 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입법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인 입장이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네이버에 대한 우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애초 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 지도에 나섰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고요. 국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 결의안 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안건은 관련 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 사안을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17시35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그런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서는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십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십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십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십니다.
황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이십니다.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이십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호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일

증인 이종호
증인 강도현
증인 최병택
증인 이도규
증인 유국희
증인 류희림

증인 황성욱
증인 장경식
증인 이평구
증인 서상원
증인 최수연

○ 위원장 최민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안질의 순서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7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분 플러스 7분 해서 12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두 위원 아까는, 지난번에는 따로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따로……

○ 위원장 최민희 아니, 따로 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 최형두 위원 아니, 그때는 별도로 7분씩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인에 대해서?

○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우선 강도현 차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 증인 강도현 예, 강도현 차관입니다.

○ 김장겸 위원 아니면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앉아서 하시지요.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혀 아무 일도 안 했다,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일본 측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 증인 강도현 행정지도 발표 이후에 해당 기업인 네이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 되면 정부에 알려 주기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지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4월 26일 날 저희가 주 일본 대사관을 통해 총무성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4월 29일 날은 그걸 전달하면서 네이버의 동 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한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5월 9일 날 다시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IR 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7월 1일 대책에 지분 매각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대통령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브리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 제가 직접 각각 각급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현재 7월 1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건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분 매각이 없는, 현재의 지분 매각 내용이 없는 내용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어떤 것 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조치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버 측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들이 처리, 협의, 잘 풀어 볼 테니 우리 정부는 지켜봐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 **증인 강도현** 잘 푼다기보다는 이 지분이라는 구조와 전체적인 얹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정부는 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장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수연 사장님 아까…… 앉으셔서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없습니까?

○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 **김장겸 위원** 마이크 갖다 드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 질타하는 것하고 강도현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최 대표님은……

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현 차관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신중하게 네이버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 **증인 최수연** 예,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사건 처음에 지난해 11월에 사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KISA와도 긴밀히 좀 소통을 해 왔었고 특히 이번 행정지도 자체는 사실 지분 매각이 주안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대응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LY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민간의 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판단 미스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네요?

○ **증인 최수연**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 **김장겸 위원** 아니, 정치적인 게 아니라 네이버가……

○ **증인 최수연** 계속해서 소통을 잘해 왔었고 특히 문제,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자본관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 자체가 그 보안 침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됐던 저희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특히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는 그런 걸 좀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민 위원** 최수연 대표님께 물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답을 하셔도…… 서 계시겠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이해민 위원** 저는 언제나 같은 입장인데 기업의 컨피덴셜(confidential)에 해당되는 것을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셔서 아마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서머리(summary)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록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 시스템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긴밀히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 신문에서, 이번에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CEO 그리고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총무성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자본 관계에 대해서 라인 야후가, 야후 쪽, 소프트뱅크 쪽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시스템 분리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답을 하시면서 시스템 부분에 관한 것은 좀 더 일시를 당기신 것 같고 자본 관계에 관한 것은 이번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번에 논의를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이 자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리뷰 오브 캐피털 타이즈(review of capital ties) 부분입니다. 50 대 50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였는데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증인 최수연** 우선은 행정지도의 상대방 자체가, 대상자가 LY라는 독립된 상장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보안 침해 사고 자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네이버와 라인이 오랫동안 개발 작업을,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개발 환경을 공유해 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을 수탁 받은 수탁자가 간접적으로 모회사의 지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자료 LY가 제출을 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정부와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LY와……

○**이해민 위원** 시간이 가고 있어서 짧게 해 주세요.

○**증인 최수연** 죄송합니다.

굉장히 그 결과 보안의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위탁 관계를 제대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도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매각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50 대 50 구조에서 더 이상 매각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최수연**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장기적으로는요?

○**증인 최수연** 장기적인 부분은 모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번에, 지난주 저는 네이버 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님께도 참석 요청을 했지만 아마 해외 출장 이유로 나오지 않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네이버 구성원은 고용 불안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특히 라인플러스 직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장기, 단기로 고용 불안이 있고요.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관한 것, 인력 유출에 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꿈꿔 오던 일본 진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있고 대표님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좌절 또한 같이 공유가 됐습니다.

저는 대표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네이버 구성원들과 함께 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행정지도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항목이, 지금 캐피털 이슈(capital issue)가 삭제된다면 네이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증인 최수연** 이미 사실은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 정부에서 해당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삭제되는 것을 더 바라시는 것이지요?

○**증인 최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저희는 사실 행정지도를 받은 수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이버에다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총무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최수연 대표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5분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질문했지만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안하신 부분,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민들이나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일본 총무상이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자본 재검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일본 총무상은 오늘…… 어제겠지요. 그러니까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총무상의 입장은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취할 것, 즉 필요하다면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기시다 총리가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다, 그러면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라는 거지만 언제든 또 필요하다면 자본 재검토의 요청이나 요구나 여러 가지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증인 최수연**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론적인,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하게는 LY로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자료 어떻게 하면 침해 사고가 사용자를 위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어제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사업자 간의 지분 구조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실 50 대 50의 지분 구조에서 한 주라도 넘어가면 이게 경영권이 바뀌는 건데 그 매각 대상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라면 네이버 말고 다른 데 바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50 대 50 조정해서 이거를 제3자에 매각하기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서 총무성의 자본 구조 조정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일단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반일 프레임이 아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증인 최수연** 제가 짧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사건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전산망에서 발생한 그런 보안 침해 사고가 원인이었고 또 행정지도의 중심, 주된 골자 역시 자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일본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자로서는 그리고 라인야후의 주주사이자 그리고 또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을 받고 있는 개발사로서는 우선은 보안 침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박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자본 관계 조정이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제의가 왔을 때 당황하셨을 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최수연** 우선은 그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의 깊게 본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정부에서도 더 정확하게 밝혀 주셨지만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버넌스를 저희가 지배하고 있어서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표현으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증인 최수연**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 강 차관님께, 2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강도현** 예, 강도현 차관입니다.

○**박민규 위원** 방금 답변 중에 7월 1일 지분 매각은 빠져 있다라고 단정하셨는데 일본 총무상의 발언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지난번 처음 강 차관님 발언했을 때 지분 매각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후에 말을 바…… 뭔가 대응이 늦은 것을 인정하시는 듯한, 나중에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과기부가 주무부처로서 우리 우수한 기업이 기술 개발해서 글로벌 진출해서 성과를 냈는데 타국의, 특히 그 정부의 부당하고 무분별

한 압박에 의해서 그 모든 소중한 자산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증인 강도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민규 위원** 7월…… 오늘 발언에도 빠져 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행간을 읽으시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총무상의 발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도현** 예, 위원님 걱정·우려, 진심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언은 일본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확인해 주었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수고하……

○**증인 강도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이동통신 관련 문제인데요.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이것 통지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니까?

○**증인 이종호** 주파수 할당 관련해서 신청한 법인과 그것을 나중에 등록할 법인이 달랐지요. 그러니까 핵심 필요사항이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일단 봤습니다.

○**이상휘 위원** 자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본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본금.

○**증인 이종호** 자본금에 대해서……

○**이상휘 위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부분.

○**증인 이종호** 예.

○**이상휘 위원** 그 부분도 선정 기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보시기에 자본금의 납입,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선정 기준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얼마를 가지고 주파수를 할당받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정 능력이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자본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주주 구성도 그렇게 하고 주식 지분도 그렇게 가져갔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유지돼서 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에 대한……

○**이상휘 위원** 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일단 주주 구성이 달라졌고 또 주주의 주식 지분도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본금도 함께 달라지고……

○**이상휘 위원** 자본금도 달라졌다?

○증인 이종호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면 해당초에 이것을 공모할 때와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증인 이종호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상휘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

○증인 이종호 예.

○이상휘 위원 자본금이 얼마였던가요? 2050억이었던가요?

○증인 이종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 2050억에 대한 부분들을 선납입하지 않고 후납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예, 그런…… 그 절차에 의하면, 그러니까 등록 시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저도 기업 출신입니다만 자본금의 선납입에 대한 부분들은 제4 이동통신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 이 회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 저희는 필요 핵심사항이, 그러니까 신청 당시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상휘 위원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다르다?

○증인 이종호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이상휘 위원 같은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달라지고 주식 지분이 또 달라지고……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 이종호 그것을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업 모양이 달라진 거지요.

○이상휘 위원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까? 통지했습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 저희는 원래 약속한 대로 그런 필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의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휘 위원 그런데 장관님, 시중에는 말이지요 스테이지엑스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총선 앞두고 이런 선정 사업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스테이지엑스가 뒤에 모종의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등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취소에 대한 것을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결국 등록 법인도 다르고 선정 당시의 법인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호 예, 그런 거지요.

○이상휘 위원 이것 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닙니까?

○증인 이종호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는 핵심 사항만 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박자가 어긋났는데 4이동통신 사업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증인 이종호 속성상 28GHz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연구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휘 위원 제가 질의 중에 좀 과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스테이지엑스 쪽에 청문 진행을 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업체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증인 이종호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다 되셨지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 이종호 장관님,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4이동통신 하는 이유가 뭐니까?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28GHz 사업자를 하나 확보하기 위함인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 통신 3사가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로 있고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경쟁의 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점도 필요하고요.

○이준석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그다음에 기존의 통신 3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28기가 대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선택권, 서비스의 어떤 품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4이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준석 위원 강도현 차관님,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스테이지엑스가 '스테이지파이브'란 이름으로 가상사업자 MVNO 사업을 하

고 있지요?

○증인 강도현 예.

○이준석 위원 해당 가상 MVNO 사업자의 사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최근 기사에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강도현 예.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실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MNO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업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도현 일단은 신규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정해 주신 전기통신사업법에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바뀐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두고 시장을 열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차관님,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주파수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사를 해서 주파수 할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를 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증인 강도현 이 건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파수 경매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절차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증인 강도현 등록은 심사를 안 거쳐 가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강도현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서류하고 내용들이 맞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8기가 주파수 문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8기가 주파수 문제가 놓치기에는 좀,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VNO 사업자에서 MNO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MVNO가 MNO로 전환하는?

○증인 강도현 많지는 않은……

○이준석 위원 실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계획서 읽어 보면 일본의 라쿠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선 백홀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사례가 독일에서 최근에 MVNO 사업자가 MNO로 전환하는데 그 두 기업의 과정을 보면 라쿠텐은 어쨌든 오프라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이고 MVNO에서 업력이 검증된 업체이고, 하지만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 정도의 MVNO 가입자를 가질 정도로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과 협력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쟁 얘기하셨는데 지금 통신 3사와 스테이지엑스가 사실 MNO가 된다고 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강도현** 사전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SRT랑 KTX에 비유하자면 SRT는 사실 열차부터 시작해서 다 KTX에서 코레일에서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푸시하지 않았다면 그게 시장에서 베틀 수 있는 방식이겠습니까? 코레일이 선뜻 자기 차량기지와 검수기관과 기차를 내줘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이후에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가지고 결국 통신 3사의 판매,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어떤 재판매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증인 강도현**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시점을 보면 3사의 28GHz에 대한 취소 문제하고 같이 있어서……

○**이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8GHz 말고 사실 스테이지엑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 GHz대의 업권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통신 3사에서 재판매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로밍이나?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국망을 구축할 경우에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 발표했던 정부 지원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먼저 참고인 질의 7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7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7분 안에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질문 못 하십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 민원,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참고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부 민원,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절 거부한 상태입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리의 권력이 있는 기관장께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의 청부 민원의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에 가깝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 나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2023년 9월 1일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자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정현 위원** 더 들어났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예,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지연·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의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도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생도 만나 봤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예,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게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었고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찾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분이고 또 이메일 주소나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고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대구의 한 수련원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다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자기의 의지로 민원을 낸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지요? 시간상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잠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18시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1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군요.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부인,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경주엑스포 관련자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경북관광공사의 직원도 민원을 제기했고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특위 위원 2명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류희림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렇지요. 동생, 학연, 그러니까 동생과 아들·동생의 부인·처제·동서,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경주엑스포 전 직장 그리고 또 전 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직장 이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류희림 위원장을 중점에,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민원을 낸 그룹들, 한 네다섯 개 그룹들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동생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엊그저께 제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셨듯이 ‘형의 후배가 나에게 형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민원을 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저께는 이제 아예 말을 바꿔서 ‘아니다. 이 민원 자체는 내가 기획한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자신이 무슨 민원을 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스스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느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자기가 민원을 직접 쳤다면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민원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사실상 대답을 못 했고요.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제가 JTBC에서 재직할 때 2022년 2월 21일과 28일에 보도했던,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 갖고 저를 아시냐, 혹시 이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보도를 못 보고 민원을 어떻게 내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동생분은 중간에 민원을 철회했군요. 형에 대한, 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동생분은 민원을 낸 지 이삼일 만에 철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삼일 만에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민원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 동생분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충돌을 인정하는데 류희림 위원장 본인은 이해충돌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관련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참고인 봉지욱** 저는 이 사건이 아마 2000년 이후의 우리 방송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위원회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팀장이 대리 민원 49건 정도를 냈다가 적발이 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약 6년 동안 낸 게 50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민

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과연을 당했다가 해고로 낫춰지고 해고를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더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기관보다 고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런 대리 민원이나 청부 민원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판결문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까지 들을까요?

그리고 혹시 참고인에게 추가질의할지 모르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우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기업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수연**

○**박충권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이에 따른 기업의 위험 부담은 뭐라고,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이버가 정치 경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증인 최수연**

○**박충권 위원** 이번 정부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 최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지금 이 현안질의의 증인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 최수연**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번 계기로 저희가 네이버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일본의 라인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그런 관심에 대해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주식회사의 경영진들은 기업의 이익과 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民間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네이버가 입장문을 밝히셨지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과기부와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최수연** 방금 드린 말씀의 요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업으로서는 사실 일본 시장이라든지 또 아까 계속 언급했던 저희의 중요한 전략 자산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 주주의 이익과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 근로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분명한 의사 표명을 좀 늦추는 바람에 이러한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사실 기업이 밝히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법에 의한 것 말고는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라인야후 1차 행정지도 직후부터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와 수시로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네이버로부터 정부의 어떤 지원 대응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강도현** 정부는 대응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정보통신차관회의를 개최하거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무성과 직접 협상을 하거나 외교부랑 협의해서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실제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서 판단을 해 달라 했던 부분들이 국회나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참았던 부분들이 그렇게 비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과 일본 정부와 저희가 각 확인한 부분을 상호 공유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확인했던 분야와 실제로 일본 해당 기업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직접적인, 네이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부터 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으로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류희림 위원장님이 취임하고, 취임 전에 법정 제재가 14건인데 류희림 위원장님 취임하고 67건으로 늘었어요, 한 5배가 늘었고. 그리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류희림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1건에서 47건으로 무려 47배가 늘었어요.

다음 PPT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후에 공정성·객관성 조항에 근거한 법정 제재 건수를 보면 그 전에 2건에서 42건으로 늘었고 또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취임 전에 1건에서 39건으로 무려 39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어제 노종면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취임 후에 신속심의도 무려 31건이나 돼요. 그리고 그중의 23건이 MBC 관련된 건이고 그리고 또 류희림 위원장님의 뉴스

타파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JTBC 뉴스룸 3건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제기된 민원 140건 중 104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로 확인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에 따른 거였어요.

이걸 보면 류희림 위원장님께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을 스스로 신속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언론 탄압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셨는데 인정하세요?

○**증인 류희림** 방송심의는 방송심의규정과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의됩니다.

○**이훈기 위원** 인정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게 우연인가요?

○**증인 류희림** 그만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심의·제재를 내린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 다음 PPT 보시지요.

류희림 위원장님, 9월 27일 날 방심위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증인 류희림** 알지 못합니다.

○**이훈기 위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는데 이것 보고 못 받으셨나요?

○**증인 류희림**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다음 PPT 보실까요?

이게 부서장하고 이 게시판에 올린 직원하고 나눈 대화예요. 여기 보면 위원장 부속실에서 게시판에 올린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고 ‘글을 내리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9월 28일 날 오후 6시 30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 이 때 부속실장이나 누구한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저런 사적인 대화까지 보고받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보면 부속실에서, 부속실장이 그러면 독단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부속실장이?

○**증인 류희림**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소위 회의 때 김유진 위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직원이 저와 사적인 뭐가 있다고 한 그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월 12일 날 위원장님은 이걸 인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의 때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 류희림** 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온갖……

○**이훈기 위원** 저건 회의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증인 류희림**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훈기 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또 위증하지 마시고요.

○**증인 류희림** 저 당시에 저와 관련된 저런 내용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떠돈 걸 제가 종합적으로 듣고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회의 때 저렇게 발언, 얘기를 하시고 물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또 위증하실 거예요?

○증인 류희림 저는 비슷한 글들이 그때 뭐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들은 것이……

○이훈기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 보시면, 9월 5일부터 죽 보시면 내용을 알고도, 인지하고도 계속 민원 사주를 받아 갖고 의결을 하고 압박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공직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명확히 방송위법 위반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류희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은 현재 권익위 수사와……

○이훈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면 오후에 항상 자리를 비우신다는데 어디를 그렇게 가세요, 오후에?

○증인 류희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공식적인 공무입니까, 아니면 출장입니까? 근태 기록에 다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위원장은 별도의……

○이훈기 위원 오후에는 거의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항상.

○증인 류희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 근태 기록 제가 요구했거든요.

○증인 류희림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항상 왜 1층을 이용 안 하고 지하로 다니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세요.

○증인 류희림 그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이훈기 위원 취향이 지하입니까? 특이하시네요.

○증인 류희림 아니요. 1층에 내려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용히 지하 1층으로 항상 차를 세워서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시지요.

○김현 위원 지금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훈기 위원님에게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사·감독권, 예산과 관련해서 검사·감독권을

발동해서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에 들어왔을 때 당시 정연주 위원장에 대해서 근태 기록을 다 확보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조사, 수사 의뢰했던 방식과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말씀하신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방심위 사무총장이지요?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까?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원장의 근태를 남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들려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이 요구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근태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만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모두의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사실 여부를 포함해서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한 시간 내에 가져오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 내에 가져오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해서 30초만요,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위원장 최민희 30초 드리세요.

○김현 위원 차량 출입할 때, 출퇴근 시 차량 사용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근태에 이거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 이동하거든요.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지금 문제 되는 그런 심의 내용이 뭔지 심의……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제 삼고 있는 심의…… 사안이 무슨 심의 사안 가지고 이렇게들 합니까? 무슨 개인적인 민원이 있었을까요? 난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심의 내용들은……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위원 간에 서로 질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지금 그렇게 해서 심의된, 신속 심의된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일체를 주세요.

○**김현 위원** 그런 내용은 아까 이훈기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희는 다 아는데……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근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증인의……

○**최형두 위원** 아니, 그거랑 다른 이야기고, 그 얘기 아니고 지금……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얘기 말고 잘못된 심의 안건 내용 말하시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심의 안건이 무엇이길래 지금 그 심의 안건이…… 심의 안건이라는 것이 지금 그게 공적인 것인지, 정말 저거 한 것인지 중요한 사안인데 무슨 뭐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에 무슨 가족들이 개인적인 민원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건 확인된 겁니다.

○**최형두 위원** 공적인 사항을……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시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난 그것도 상당히 의문인데 어떻게 뉴스타파가 모든 방심위에서 나온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이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하고.

다음에……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잠깐만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 요구하십니까, 정확히 무슨 자료를?

○**최형두 위원**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민원 사주가 되어서 심의한 심의 내용이 뭡니까? 심의한 기사가 어떤 기사가 문제 된 겁니까? 그 일체하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냐하면 더 하면 저희가 국회 권위에 문제 가 있어서 그만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왜 국회의 권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왜냐하면요 이 얘기는 다 나온 겁니다. 기사에서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도 수많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최형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도 보고 계신데 지금 무슨 방심위원장이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족들 통해서 민원했다 그러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하나, 두 번째……

○**위원장 최민희** 그게 기자의 능력이잖아요.

○**최형두 위원** 기자의 능력이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예, 취재 능력.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건.

○**최형두 위원** 두 번째는…… 국민들도 알아야지요.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보면……

○**위원장 최민희**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최형두 위원** 질문을 보면 이게……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형두 위원** 지금 10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안건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개인적 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그게 의문이다, 이게.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최형두 위원** 저기요가 뭐니까, 저기요가? 위원장님, 저기요가 뭐가 저기요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최형두 위원께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민원 사주한 내용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한 심의 요청이었고, 이건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이 취재 과정은 민원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시지요,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고.

류희목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했고 동생 맞고 심의 나온 거 맞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위원장 최민희**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 불법한……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말도 안 되는…… 그걸 당연히 심의해야지요, 그건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장 최민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는 뭐 개인적인 민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개인 사주, 개인 민원 사주 하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민원 사주, 청부 민원 의혹입니다.

○**최형두 위원** 당연히 심의해야 될 내용이구먼요,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심의 안 해요?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최수연 대표님, 라인야후의 실질적인 경영은 2019년 당초 지분 50 대 50이었지요, 소프트뱅크하고? 50 대 50, 2019년도에?

○**증인 최수연** 예, 저희가 지금 LY의 최대주주가 A홀딩스라는 주주이고……

○**신성범 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50 대 50이었지요, 합의한 게?

○**증인 최수연** 예,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50 대 50입니다.

○**신성범 위원** A홀딩스를 2021년도에 설립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소프트뱅크 3, 네이버

2 구도가 됐지요, 2021년도?

○증인 최수연 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21년에 이미 일본 정부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최수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신성범 위원 2021년 4월에, 그때부터 이미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는 다루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증인 최수연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라인을 견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친일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시는 대로 2019년, 2021년도에 경영 구도가 죽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죽창가를 외쳤던 그때 당시 정부의 무능으로도 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거를 현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권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과방위의 가장 큰 현안은 아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일 겁니다. 저는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방통위가 당연히 후임 인선을 착수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전부 다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체제의 비합리성,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YTN의 지배주주 변경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본안소송은 아닙니다만 가처분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전 위원장을 끝까지 탄핵하려고 했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는 국민들이 알리라고 믿고, 특히 오늘 사표를 낸 데 대해서 도망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인격모독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수당에서 탄핵안을 내놨고 언젠가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서 방통위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공영방송, 언론계 출신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연유가 있는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에서…… 결국은 방문진 이사장을 바꿨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고영주 이사장을 바꿨고. 그래서 임시이사회에서 2017년 11월 달에 김장겸 당시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뒤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KBS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진들을 감사원이 업무추진비와 범인카드로 속칭 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이사진들을 바꾼 다음에 결국은 2018년 1월 달에 고대영 사장을 해임했어요.

무슨 뜻이냐? 당시의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정교한 계획을 갖고 수행한 반면에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의도는 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못 했던 거예요.

이런 사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저런 사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계속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적어도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민주당이 그리고 현재 야당들이 현재의 방송, 적어도 문화방송의 지휘체계를, 지도부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좀 더 현실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22대 국회에 국무위원으로서 첫 출석을 이종호 장관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사태 등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고 계시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해서 몇 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핵심 국가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뒤졌다는데 그런 발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한테 이제 드디어 추월당했구나 한 건데요. 비상사태 아닙니까?

짧게 말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예, 물론 R&D를 여러 부처에 걸쳐서 하지만 주로 과기정통부에서 R&D를 많이 수행합니다.

○정동영 위원 결국 이제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따라잡은 데에는 하나는 과학기술 투자 그리고 인력 양성 두 군데에서 성공을 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중국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점하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텐데, 지금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금 내년도 R&D 예산이 27조 6000억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이제 주요 R&D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주요 R&D가……

○정동영 위원 어쨌든 그건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이십……

○정동영 위원 7조 6000억.

○증인 이종호 27조 6000억이 아니고 24.7조……

○정동영 위원 합쳐서, 일반 R&D 합쳐서 27조 6000억이라고, 아닙니까?

○증인 이종호 일반 R&D까지 합치면 29.4, 지금 그 정도로 29.4……

○정동영 위원 예,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R&D가 23년, 작년에 비해서 31조에서 26조로 한 5조 줄었잖아요. 그런데……

○**증인 이종호** 9.4% 정도 줄었는데 1.8조 줄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줄었으면 이제 2023년도 수준을 회복하려면 27년 정도나 되어야 될 텐데……

○**증인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정동영 위원** 그러면 23년 수준을 언제 회복합니까? 내년에는 안 되는 거고.

○**증인 이종호** 23년 수준을 이미 내년에는 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내년이 29조고 23년이 31조인데?

○**증인 이종호** 그게 원래 23년 R&D에는 주요 R&D, 일반 R&D, 비R&D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비R&D 1.8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1.8조가 빠져나가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하는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피크 코리아가 어떤 뜻인지요?

○**정동영 위원** 한국 경제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간다 하는 언론 용어입니다만.

○**증인 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군살 같은 것도 빼고 시스템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었고, 굉장히 예산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을 넘겨서 예산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예전보다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장관님은 공과대학을 진학을 하셨는데, 의대 대신,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엔지니어가, 반도체 전문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공대 보다는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가면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텐데, 최근에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우리 국가 핵심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종호** 그 법적인 기반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꼭 의대를 가는 것이 정답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이공계 전체 분야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그리고 그 학생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막연한 빅마우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적재적소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 내고 하는 그런 탄력적인 제도도 만들었고 그러한 제도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도 높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묻어 놓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씩 위원님께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조인철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8시에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은 좀 팩트에 기반한, 막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 팩트에 기반해서 답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강탈 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수연 대표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증인 최수연** 서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대표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증인 최수연** 제가 22년 3월에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요?

○**증인 최수연** 22년 3월……

○**조인철 위원** 22년. 지금까지 혹시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증인 최수연** 회사의 전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라인야후를 포함해서 다양한 중요한 저희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인철 위원**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증인 최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늘 해 왔다는 거예요?

○**증인 최수연** 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정도는 해 보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 아닌가요?

○**증인 최수연** 시기적……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영전략 차원에서 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늘 검토를 하시겠지요. 이번에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중에 네이버에서 원하는 것은 좀 자율적인 고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증인 최수연**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자율적인 고민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증인 최수연** 아니요,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보다는 아마 일본 정부도 염두에 두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지난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경제안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7월 1일 어제까지 라인야후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은 지분 조정을 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야후 사이에 여러 가지 무언가 보안……

○조인철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은 곤란하다,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시스템 분리만 좀 조기로 당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지요?

○증인 이종호 단기적인 지분 이동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분 매각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건 회사 내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영상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인 거고요.

○조인철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또는 어떤 시도를 해 봤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해 봤는데 어떤 실국장 간에 대응을 해 봤거나, 그러니까 관련 부처라고 보면 외교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었고 다만 실무자 간에……

○증인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예요. 실무자 간에 유선으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번 통화는 했다, 이 정도가 답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증인 이종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외교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제가 보면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하는 게 다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인 이종호 일단은 이제 외교……

○조인철 위원 그 이상 뭐 있나요? 차관님 말씀해 보실래요?

○증인 이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강도현 5월 10일 날 제가 직접 브리핑할 때도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 우리 장관님, 저 같이 아침에 다른 행사와 함께 그 논의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외교부차관께 제가 요청했던 부분도 일본이, 우리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라 를 같이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지금 아까 최수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으로 답할 수 없다,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일본 정부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기업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백그라운드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인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증인 이종호** 네이버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네이버하고……

○**조인철 위원** 손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제안보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그랬으니까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거나, 특히 제가 오늘 언론을 죽 탐색을 해 봤어요. 탐색을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자본 관계가 빠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좀 구축을 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호** 대응 체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지금 답을 할 때 조금 못 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손해나게 하지 않을, 그 뒷얘기가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뒷얘기 좀 먼저 하십시오. 손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뭔가 경영상의 판단,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네이버가 어떤 차별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때 뭔가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응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그냥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강도현 2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4이동통신이 이번에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증인 강도현 28㎇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독특한 서비스들이 선보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성공과 여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정훈 위원 요금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증인 강도현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 체계는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요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을 텐데, 지금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허가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등록제로 처음 바꾼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위원 등록제로 바꾼 이유가 뭐니까?

○증인 강도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여러 가지들을 했다가 심사 부분에 굉장히 계속 탈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저희가 19년에 법을 바꾸면서 그러한 것들의 등록 요건을 좀 완화해 놓고 진행을 해 보자,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췄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 강도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능력 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수준에서는 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는 등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됐던 부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최종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경매를 해서 그다음에 경매에 범인이 되는 부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마지막 대상 범인으로 할당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서……

○박정훈 위원 낙찰을 받은 건 맞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경매에서 선발된 건 맞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낙찰을 받기 전에 냈던 주파수 이용계획서 여기에 보면 자본금을 5월 7일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증인 강도현 이용계획서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했던 별지 양식의 신청서, 세부 명세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 초기납입자본금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개에는 2050억을 납부하겠다고 납입자본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2개월 후에 완납을 해도 된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해서 낙찰을 했던 겁니까?

○**증인 강도현** 그렇지 않습니다. 나왔던 부분은 자료의 보정을 요구했던 부분에서 2개월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출자요건확인서 부분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라 했고 그다음에 거기 자료의 보정을 하라 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지금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주주들 구성을 제출했던 계획서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 주주들의 구성을 봤을 때 IT 업계에서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낙찰할 때는?

○**증인 강도현** 그런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신청했던 법인과 기준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나서 그 법인이 동일하냐 여부를 봤는데 주주 구성이 다르고 그다음에 제출키로 되어 있던 출자 부분이 좀 달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박정훈 위원** 주주가 바뀌는 부분에, 자본금을 2개월 뒤에 완납해도 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주주가 바뀐 측면도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그건 기업의 사정일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의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주도 달랐고 자본금도 달랐고, 두 번째로는 초기납입자본금의 해석도 저희가 판단했던 분야에서는 법률 자문을 거쳤을 때는 일관되게 초기에 납입해야 된다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증인 강도현** 4이동통신의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내용에 있어서의 법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환경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했던 부분……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강도현** 연구반을 가동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훈 위원** 어쨌든 국민들이 이용 요금이 많이 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뒤에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강도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온 봉지욱 기자도 청부 민원에 대해서 강한 성토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이게 사실이면 용납 못 할 심각한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께 좀 여쭈었는데 여러 가지가 거짓말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류희림 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와 관련해서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청부 민원 의혹이 불거지기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서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적절치가 않아요?

○**증인 류희림** 예.

○**한민수 위원** 지금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말씀을 하셔야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주 25일 현안질의에서 제가 2023년 9월 14일 방심위원회 사무처 팀장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아무개 씨의 민원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없다고 하신 게 맞으신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PPT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보도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23년 12월 23일 날 공익제보자, 청부 민원 의혹을 고발한 공익제보자의 권익위 신고서입니다.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류희림** 저는 뭐 저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익명의 공익신고자지요.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서에 따르면 심의위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되는—류 아무개 씨라고 하겠지만 누구나 다 알 겁니다—류 아무개 씨의 민원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신고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4일 뒤에 류 아무개 씨의 민원이 취하됐습니다.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위원장은 이 신고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신청 현황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현재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있고 없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못 하겠다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증인 류희림** 아까 대답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또 신고서 보면 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2023년 9월 27일 내부 게시판에—아까도 질문이 나왔었지요—‘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 저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 뒤에 언론 보도에서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봉지속 참고인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지요? 식사하고 조금 이따가 봉지 속 참고인은 오시면 묻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장경식 국제협력단장님……

장 단장님이 이 청부 민원 사태가 불거지고 할 때가 2023년 9월, 그 당시가 종편 보도 채널 팀장 하신 거지요?

○**증인 장경식** 예.

○**한민수 위원** 지난 전체회의에 출석하셨을 때 당시 팀장일 때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친척, 주변 인물들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어요.

○**증인 장경식** 주변 인물까지는 모르겠고요, 오전에 저한테 담당 직원이 가져왔던 문서는 동생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한민수 위원** 딱 한 명입니까?

○**증인 장경식** 예.

○**한민수 위원** 딱 한 명만 알았던 거예요?

○**증인 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증인 장경식**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질의하고 공익제보자가 얘기해서 나왔던 그 팀장은 우리 장 단장님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알겠지요, 그것은?

○**증인 장경식** 예, 날짜상으로는 저를 지목한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 공익제보자가 허위로 제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장경식**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최수연 네이버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바쁘십니다.

대표님, 일본 총무성이 직접 나서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행정지도, 혹시 이와 같은 전례를 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최수연** 저희 알지는 못합니다.

○**황정아 위원**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요. 이례적인 일인가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안한다고 답하셨는데 제가 네이버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일본의 강탈 의도가 라인 매각 검토의 핵심 근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최수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네이버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일본의 강탈 의도가 라인 매각 검토의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인 최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라인야후가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면서도 지분 조정 협상, 사실상 라인 뺏기를 계속할 의도를 밝혔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네이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증인 최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자본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 회사에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입장을 저희는 소프트뱅크에 알릴 예정입니다.

○**황정아 위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라인야후 지분 및 기술권 탈취 야욕을 노골화하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수연** 보도는 저도 접해서 들었지만 저희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일본이 그동안 자본 관계 재검토지 지분을 줄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며 발뺌을 해 왔지만 사실상 라인 강탈 시도 아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이버 압박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증인 최수연** 예. 저희는 그런 점은 저희 정부에서도 명확히 해 주셨고 일본 정부도 명확히 입장을 그렇게 밝혀 주신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일본 총무성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2023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하고 그다음에 1차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있었고 그런 다음에 4월 16일 날 2차 행정지도 그리고 죽 지금까지 2차 행정지도에 대해서…… 1차 행정지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2차 행정지도 나온 것까지 보면 지금까지 일본이 라인 강탈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인 사태에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4위에서 8위로 4계단이나,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보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번 사태 결과들에서 향후 브랜드 가치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수연** 예,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또 혁명하게 풀어 가는지 그리고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사용자들 그리고 저희 주주들도 네이버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에서 좀 더 더 잘할 수 있는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행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라인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진출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일본 서비스만 강탈하겠다고 했습니까? 중국에는 글로벌 플랫폼 라인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꼴이 아닙니까?

○**증인 최수연** 예,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전략의 변화는 당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원론적인 말씀드리자면 사실 라인아후도 일본에 독립된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의 어떤 변화가 회사 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나 등 여권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인 대응에 나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최수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주주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게 뻔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대책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 대일 굴욕외교에 알아서 굴종하고 있는 배임행위 아닙니까?

○**증인 최수연** 송구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저희의 입장을 이번 지분 조정은 저희가 행정지도에 단순히, 그 해석도 중요했었지만 단순히 대응할지 말지의 여부가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저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단기적으로 매각하지는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저희의 숙고가 사실은 배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보신 자료…… 저를 위해서 특별히 카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 제17조에 따라서 토론에 참가하실 때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시에는 의장석에서 내려오고 간사와 자리를 바꾸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거의 1년이고 그래서 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다시 5분 드리십시오, 다시. 지금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당연하지요.

○**최수진 위원** 죄송해요, 최수연 대표님. 나오신 김에 오늘 질문을 다 받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사업을하시는 바쁘신 분을 이렇게 국회에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라인야후가 어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A홀딩스의 지분 조정에 관해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의 이동은 곤란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당장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의미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자본 관계와 기술 이전 등을 재검토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그와 더불어서 사실 지적받았던 보안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대책이 어제 제출한 그 대응방안으로 좀 충분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최수진 위원 예.

두 번째, 그러면 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의 공식적인 피드백이 오늘 바로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최수연 제가 직접, 사실 저희는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상대방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원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아,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민간기업 간의 이슈가 너무나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된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측에서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최수연 예, 이 사안에 국한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안을 책임지고 있고 개발 환경을 공유받은 수탁사로서 어찌 됐든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낳게 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는 일본이라는 시장과 또 글로벌 진출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가 그리고 라인야후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에 협력의 그런 좋은 사례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같이 하였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는 예전에 기업인으로서 결국 안정적인 이윤 창출이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에게 좀 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네이버의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이버가 국가 대표의 포털로서 구글과 AI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래 성장과 혁신의 핵심이 될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증인 최수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AI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상 모든 전장에서 빅테크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저희는 국민의 애국심이 아니라 사실 저희의 R&D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R&D에 대한 투자라든지 특히 요즘 AI에 대해서는 인적인, 물적인 투자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 저희 네이버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저희 국민 사용자들한테 앞

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우리가 정말 넣은, IT 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네이버한테 정말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과 이 사안의 해결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최수연** 예, 감사드립니다.

○**최수진 위원** 그다음……

좀 더 써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아직 53초나 남았습니다.

○**최수진 위원** 제가 진짜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짧게 우선 장관님한테 질문하고 만약에 여기서 질문 다 못 하면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최수진 위원**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D 예산제도가 기존의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기존의 방법은 시의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대신 예산을 이렇게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연구 추세에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술성 평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기술성 평가……

예, R&D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의성 그런 측면에서 평가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기존의 예산에서는 한번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중간에 목표를 바꾸기도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꿔서 연구 환경에 맞게 바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진 위원** 예,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장경식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증인 선서를 하셨다는 점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팀장이셨고 최근에 단장으로 승진하셨고 류희림 위원장과 미국 출장도 함께 다녀오신 측근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증인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증언에 따라서 위증의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증의 무개는 권익위나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시지요?

○**증인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경식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증인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일단 PPT 보고서……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14일 보고서, 이 내용은 알고 있다고 시인하셨어요?

○증인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다만 보고는 안 했다고 하셨어요?

○증인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같은 입장이십니까?

○증인 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하루 전에 방심위 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과 나눈 카톡 대화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특이한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류희림이 신속 심의하자고 한 민원들 중에 류희림 친형제가 넣은 민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2건이 친형제가 넣은 건이야, 99.9% 확인한, 확실하다.

다음 장 주세요.

왜 류희림 위원장의 친형제라고 확신하는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연히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찾아봤더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이건 보고서 작성 당일인 9월 14일입니다. 두 직원의 대화고요. 이해충돌 문제를 찾았으니 보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더 커진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하더라.

팀장이 누구입니까? 본인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증인 장경식 저 담당 직원이……

○노종면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하나 더 보여 드려야 됩니까?

방심위에서 제출한 출입기록입니다. 19층에 류희림 위원장실 있지요? 13시 56분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증인 장경식 간 것으로 나옵니다.

○노종면 위원 이전 것 다시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보신 시각이 13시 56분이고 담당 직원이 2시 34분에 팀장님 위원장실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고 동료 직원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이게 위조된 카톡입니까?

○증인 장경식 그때가 오전에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그 문서를 보고받고요. 오후는 그 다음 날이 인사 발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거의 사무실에 왔다 갔다 이동

을 하면서 제가……

○**노종면 위원**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조금 이따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나오시고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일지 정리해 놓은 것.

카톡 대화 등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9월 13일 14시 담당 직원이 류희림 동생 민원을 발견합니다. 14시 30분 동료 직원과 카톡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9월 14일 오전에 담당 직원의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13시 56분 장 팀장이, 당시 팀장이 위원장실 출입했다는 것 조금 전에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14시 팀장은 류희림 위원장 대면보고를 하고요. 14시 34분에 담당 직원이 팀장이 보고 다녀온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알립니다, 위원장이 극찬하더라. 15시에 류희림 씨 연관된 단체의 민원이 취하됩니다. 그리고 15일, 바로 다음날 오전 8시 류희림 씨 친동생의 민원이 취하됩니다. 그리고 카톡에 나왔던 대로 9월 19일 소위는 류희림 씨가 참석한 채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방송위·방심위 사태의 현주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방심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책임이고 이런 방심위의 청부 민원이 사태가 줄줄이 터지는데도 잘한다고 부추긴 여권 전체의 책임이고, 김홍일 탄핵했다고 난리들이지요? 저기 서 있는 방심위원장은 탄핵 못 하는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증인 류희림** 개인적인 통화 내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더 하세요. 해명하실 내용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위증 고발당하기 전에 유일하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증인 장경식**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봤고요. 극찬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후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저희가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층이 왔다 갔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시건장치가 열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9층도 갔다 왔을 수 있고 16층, 17층 다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19층을 갔다는 게 꼭 위원장실만 갔다는 그런 증거자료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봅시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우영 위원님 차례이나 안 계셔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네이버 최수연 대표 잠깐 쉴 동안에…… 조금 이따 모실게요.
조금 전에 호통치시던데 민원 사주라는 게……

マイク를 그냥, 방심위원장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원장님이나 저기 마이크 드리십시오.

○최형두 위원 나오는 데 시간 걸리니까.

이것은 좀……

○위원장 최민희 다시 5분 드리세요, 다시 5분.

○최형두 위원 나오고 들어가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사주라 그래서 무슨 개인적인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나 무슨 입찰 민원이 있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조작 뉴스 관련된 보도 매체에 대한 심의였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 심의는 빨리 해야지요. 그런 심의 늦추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흔들고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굉장히 위험천만한 허위·조작 뉴스 그리고 그것을 게이트 키핑도 하지 않고 전혀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MBC 뉴스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은 일종의 범죄 행위인데 심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은 단독 부의권이 있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나는 뭘로 가지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놀라운 것은 저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있나 이게 놀랍습니다. 일종의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증인 류희림 저희들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이거 참…… 제가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민원 사주라고 이름 붙이고 보도한 특정 언론사 보니까 전부……

김만배·신학림 이 사람들 구속돼 있지요, 지금?

○증인 류희림 예.

○최형두 위원 이것 대통령선거를 조작하려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허위·조작 뉴스, 그것도 아무런 검증 없이, 균형 보도 없이 보도한 매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 그 당사자들을 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것을 민원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참 정말 웃을 일입니다. 나는 류희림 위원장이 집안의 무슨 문제를 방심위를 통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유출 정보 또 사실은 사생활을 무시한 이른바 취재를 빙자한 행위들 이렇게 해서,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대응하세요. 이것 보니까 나는 입찰 비리가 있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지요? 방심위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지요?

○**증인 류희림** 방심위 공익적 민원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님 잠깐만……

나오실 때 그냥……

○**위원장 최민희** 세워 주세요.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우리 국익을 해치는 문제냐 또 네이버의 기업 이익을 해치는 문제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야후는 2019년에 이미 어디랑 반반씩 그렇게 됐지요?

○**증인 최수연**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셨는데 마사요시 손, 손정의를 만났지요. 마사요시 손이 이해진 회장을 만난 뒤에 50 대 50이라는 합작투자가 이루어졌지요?

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이해진 의장이 라인의 구조, 이것은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음 봅시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라인·Z홀딩스가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 2019년에 지분은 50 대 50이지만 이사회 구조는 이미 네이버가 2, 소프트뱅크 3으로 해서 일본 기업 돼버렸습니다. 일본 지배 되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까?

○**증인 최수연** ……

○**최형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의 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텐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 팔아먹으려고 이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네이버는 야후와 이렇게 이런 거래를 했습니까?

○**증인 최수연** 당시에 라인과 야후가 일본에서 가장 큰 PC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와 또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 사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네이버의 입장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당하게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하는데 당사자는 그 지분 매각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까?

○**증인 최수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박을 해서 네이버가 기업 이익을 침해 당할 처지에 있습니까?

○**증인 최수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 문제는, 국민 기업 네이버를 보호하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국회의 관심사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이런 식의 것들이 네이버의 자사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명심해야겠지요?

○**증인 최수연** (고개를 끄덕임)

○**최형두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최수연** 저희가 어떤 경영적인 판단을 하든지 저희 회사 가치와 또 주주들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느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지요?

○**증인 류희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로 방송통신 설치에 관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통신 설치법에 근거해서 하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김현 위원** 그런데 지난 2024년도 3월 14일 날 MBC 안형준 대표이사께서 신속심의 요건 해당 여부 및 심의위원 제척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지요?

○**증인 류희림**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명의로 이 답신을 보낸 건데 이런 제척에 대한 질의가 몇 건이나 왔습니까, 올해?

○**증인 류희림** 받은 기억은 나는데 몇 번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1건입니다, 1건. 1건인데 어떻게 답변이 나갔는지 모르신다……

어떻게 나갔냐 하면요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3월 14일에 대한 회신인데, 3월 14일의 회신이 뭐냐 하면 신속심의 요건 해당 여부 및 심의위원 제척에 대한 질의인데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단 말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증인 류희림**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증인 류희림** ……

○**김현 위원**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예, 설치 목적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현 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증인 류희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잖아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류희림 상임위원에 기피를 해 달라고 한 요구가 MBC로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무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장이 직접 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사장에게.

○**증인 류희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MBC에 보낸 거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인이 찍힌 위원회의 이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지상파……

우리나라에 지상파 방송이 몇 개지요? 주요.

○**증인 류희림** KBS, MBC, SBS, EBS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언론사가 MBC로 올해…… 어쨌든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 페센티지가 나온 언론사가 MBC 아닙니까. 그 MBC 사장이 보낸 공문의 답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해 줘야 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증인 류희림** 7월 22일까지입니다.

○**김현 위원** 앞서 출퇴근, 근태 기록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태 기록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으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차량 기록은요?

○**증인 류희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근태하고 차량하고 뭐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긴 하지만 차량일지가 있다는 것은 근태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태 기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근태에 대한 기록은 있는 거지요.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그렇게 볼 수 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김현 위원** 그런데 혹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어떤 걸로 해촉이 됐었지요?

○**증인 류희림**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카드 사용하고……

○ **김현 위원**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 **증인 류희림** 예, 카드 사용하고 그다음에……

○ **김현 위원** 아닙니다. 근태 기록입니다, 근태 기록.

○ **증인 류희림**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출근카드를 찍고 퇴근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날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 **증인 류희림** 제가 기억나는 것은……

○ **김현 위원** 아니,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만 물었습니다.

○ **증인 류희림**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 **김현 위원** 아니,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 **증인 류희림** 예, 알겠습니다.

○ **김현 위원** 아니, 기억하십니까?

○ **증인 류희림** 예,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 **김현 위원** 맞지요? 9시 5분.

○ **증인 류희림** 그 내용,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 위원** 9시 5분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출근·퇴근카드가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그에 해당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제가 오늘 최수진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제가 그 조항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는 많은 상임위원장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관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임의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 처벌조항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그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 회의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인 질의 7분 쓰겠습니다.

봉지욱 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지요?

○ **참고인 봉지욱** 예.

○ **위원장 최민희** 이게 가짜뉴스라고 규정되고 여권에서는 1급 살인죄, 사형감이라고 했지요?

○ **참고인 봉지욱** 예.

○ **위원장 최민희** 이게 진짜 가짜뉴스 맞습니까?

○ **참고인 봉지욱** 지금 검찰도 그렇고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그렇고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윤석열 검증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 보도고요. 저희가 보도한 것은 단순히 김만배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제3자의 증언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도를

했고 또 제가 뉴스타파에 와서 약 2년 동안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 15만 페이지를 근거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게 가짜뉴스가 아닌 근거는 저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류희목 씨를 비롯해서 민원인들이 류희림 위원장 주변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아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봤는데, 최 위원님도 보니까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탐사보도 낼 때에는, 데이터기자가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심위원장이 말했듯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적하면서, 또 특히 신문 기사에 부고 기사 같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의 처제·동서·조카·사위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국민의힘에서 정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중간에 류희목 씨가 자신이 낸 민원을 철회합니다. 그게 2023년 9월 15일이에요. 왜 철회했다고 하던가요?

○참고인 봉지욱 저에게 말을 할 때는 한 이삼일 만에, 이를 만에 형하고 뭐 하는 게 부적절하다 해서 철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동생이 민원을 낸 것은 9월 5일과 6일 두 번이었고 그것 철회한 것은 9월 15일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장경식 단장이 얘기했듯이 보고한 날인 9월 14일에 박우귀 미디어연대 대표가 먼저 취하를 하고요. 그다음 날 동생이 한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희에게 분명히 부적절하다,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취하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부인은 취하를 안 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위원장 최민희 동생은 결국은 형이 위원장인데 동생이 민원을 내는 게,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것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철회했겠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유림의 무슨 관련 단체 일을 하셨는데 선비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셨고요.

○위원장 최민희 선비……

○참고인 봉지욱 이분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류 위원장의 동생분이 저희 뉴스타파의 6년째 회원이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참고인 봉지욱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현재도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동생은 이해충돌을 걱정하는데 동생이 심의를 냈다는 것 자체를 지난 국회에 출석해서도 류희림 위원장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동생이 민원을 철회했는데 모르는 게…… 모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동생은 그렇다 쳐도 류희림 위원장의 아드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아드

님은 아버지 몰래 했을까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이 사건 보도를 8개월째 이어 가고 있다고 하셨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위원장 최민희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오래 보도하고 추적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시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경질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뉴스타파가 보도한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면서, 특히 저희 보도를 인용 보도하는 것 자체를 막는……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도 뉴스타파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듯이 저희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상황에서 민원 사주, 청부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하고 있고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류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청부 민원 사건은 정말로 지인들을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무 간단해요.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기록을 확인하려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런 증거들은 사라지겠지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도 무엇 때문인지,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일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 뭘 믿고 저렇게 버티십니까? 이것은,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뭘 믿고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류희림 위원장이…… 처음에 제가 반론을 받으려고 저와 지금 여기 있는 박종화 PD가 한 여덟 차례 집으로, 회사로 찾아갔어요. 지하 1층으로 출근하시다가 갑자기 지하 2층으로 출근하시고 갑자기 1층으로 출근하시고 저희를 굉장히 골탕을 많이 먹이셨어요. 왜 반론과 해명을 못 하시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하면서, 야권 방심위원들을 해촉하면서 그때부터는 회의에 나타나셔서 당당하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2022년 6월에 심정민 소령의 추모제를 류 위원장이 주도해서 열었고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왔고 김건희 여사가 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또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를 받을 때도 본인이 감찰위원으로 나선 경험이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발로 이게 소문이 돌아요.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

‘차기 방통위원장은 한다’, ‘방심위원장 또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소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요.

저는 저희 초등학생 딸을 데려다주러,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러 나갔을 때 검찰 수사관을 맞닥뜨렸습니다. 저희 딸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을 시킬 거야’ 이런 겁박이 충분히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말하는 애완견 논란도 있지만 애완견을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할 때 ‘내가 언론을 월 방법은 알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권력자의 머릿속에 ‘언론을 월 방법을 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지금 참고인 상대로 해도 3분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7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예, 참고인 상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7분인데 참고인만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김장겸 위원** 봉지욱 씨 나와 주세요.

뉴스타파에 계신다고.

○**참고인 봉지욱** 예.

○**김장겸 위원** 뉴스타파는 언론노조가 운영하는 거지요?

○**참고인 봉지욱** 잘 안 들립니다.

○**김장겸 위원** 예?

○**참고인 봉지욱**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뉴스타파는 언론노조가 운영하는 데지요?

○**참고인 봉지욱** 언론노조가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 노조가 언론노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참고인 봉지욱** 최초에 시작할 때 2011년, 12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언론노조에서 이사 파견이 온 것도 아니고요.

○**김장겸 위원** 그러면 법인입니까? 산하 법인이에요? 산하에 있는……

○ 참고인 봉지욱 재단법인입니다.

○김장겸 위원 재단법인이에요?

○ 참고인 봉지욱 예.

○김장겸 위원 아까 김만배·신학림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 참고인 봉지욱 예.

○김장겸 위원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참고인 봉지욱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칼럼이 무죄가 났지요.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권력자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참고인 봉지욱 구속이 되면 유죄가 되는 겁니까?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 참고인 봉지욱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김장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질문에…… 언론인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무슨 사실, 무슨 팩트로 그게 아니라고…… 구속이라고, 구속됐다고 제가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언론인이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요?

○ 참고인 봉지욱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대장동 X파일’이라는 카테고리에 70여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다른 것을 말씀……

○김장겸 위원 봉지욱 씨, JTBC에 계셨지요?

○ 참고인 봉지욱 예.

○김장겸 위원 JTBC에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지요?

○ 참고인 봉지욱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JTBC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감사를 했던데, 보고하고 발제 경위 조사를 보고를 했던데 봉지욱 씨가 상당히 보고도 않고 거짓 보고도 하고 해서 그게 허위였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아는데 이것 인정합니까?

○ 참고인 봉지욱 그 중간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겸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참고인 봉지욱 허위였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우형의 반론을 싣지 않았고……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조우형을 몇 번, 몇 차례 만났지요?

○ 참고인 봉지욱 조우형 씨가 제게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다거나 제가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습니까’라고 물어본 사실 자체가 없어요, 녹취록에. 100분짜리 녹취록 원문이 JTBC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JTBC라는 곳이 제가 전 직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는 제게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우형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고 저를 지적을 하면서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때 JTBC 보고서를 보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씨가 조우형 인터뷰 녹취를 했고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했다, 또 조우형 인터뷰를 보면 2011년에 계좌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 하고도 그냥 둔 거다라고 사실은 2012년인데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JTBC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인 봉지욱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 JTBC 보고서가 허위입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게 허위입니다. 제가 조우형 씨를 만나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이게 JTBC는 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을 허위라고요?

○참고인 봉지욱 그게 허위라서 제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했습니까, 민사소송?

○참고인 봉지욱 형사소송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 맞춰서요.

○김장겸 위원 아니, 이 정도 허위면 민사가 아니고 형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봉지욱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것을 다 부정한다?

지금 아까 권력에 대한 비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검사 후보 이런 것을 집중 파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혹은 송영길 돈봉투나 이런 것 파헤친 적 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지요, 보도를.

○김장겸 위원 뭘 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저희는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취재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보도하지는 못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제보가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소위 보수 정권이나 보수 우파 인사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취재했다, 나머지 쪽 진보 좌파 진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런 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참고인 봉지욱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저희가,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한 파일에서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을 소개했었고……

○김장겸 위원 뉴스타파의…… 됐습니다. 잠깐만요.

뉴스타파의 보도 경위를 보면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당시에 대선 직전에. 보도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타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타 언론사가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선 하루 전인가 이를 전인가까지 민언련이 드디어 나섭니다. 보도 안 한 언론사가 있다, 그 두 개를 적시해요. TV조선 그리고 채널A. 그래서 그 압박에 못 견뎌 가지고 결국 두 언론사도 다 보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허위임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본인이 부인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로운 심층 취재, 검증 취재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을 앞두고 공작을 벌였다. 본인이 공작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고인 봉지욱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김장겸 위원님이 많이 사실 조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3월 6일 9시 넘어서 저희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갔고요. 이재명 그때 후보자의 문자는 저희 보도 이후에 뿐려진 겁니다. 사전에 알고 뿐려진 게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이후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바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세요.

○참고인 봉지욱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사실관계대로 이야기했어요.

○참고인 봉지욱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했다니까. 아니, 이분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조작하려고 그래?

○참고인 봉지욱 말씀하신 것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타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국회에 나와 가지고 위원들의 발언까지 조작·왜곡 보도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이 급한데……

○참고인 봉지욱 지금 위원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시만요.

이것은 김장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타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고. 이것은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봉지욱 씨, 사과하시고 앉으세요.

○참고인 봉지욱 예,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릴 테지만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장겸 위원 아니, 더 이상…… 자, 끝냅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제 시간 끝.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최수연 대표님 나와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먼저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 최대한 생각해서 아까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최수연 대표의 대답은 매우 아쉽습니다. 수탁사, 지주사 사이 관계 꼬여서 이런 일 있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수탁사 문제점을 해결하면 됩니다. 경영 처음 해 보셨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

고 처음 겪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문제시하는 것이 놀랍게도 명확히 일본 총무성의 논리입니다. 아마 수탁사 운운하면서 잘 넘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지난주에 네이버 구성원들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동시에 향후 오늘 대답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되냐 증인이 되냐 갈림길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바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이미 전원 일본인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네이버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개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네이버 구성원 위해서, 네이버 개발자 위해서, UX·QA팀, 여러 팀 위해서, 네이버 주주 위해서, 글로벌 진출 꾀하는 우리나라 기업 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주식 얼마입니까?

○**증인 최수연** 15만 9900원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지난 1년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나요?

○**증인 최수연** 아니요, 오늘 가장 낮은 주가였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까 대표는 주주들의 이득을,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네이버 주주를 위해 일을 하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들어가셔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네이버를 위해서 하는 질문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세계의 기업·투자자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업을 토끼를 지켜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침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본 신문 보도입니다. 총무성이 소프트뱅크 대표 불러서 네이버의 출자 비율 낮추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옮길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강한 의지를 느꼈으며 설마 이렇게 깊게 들어올지 몰랐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침탈 시도 멈춰라, 자본 관계 재검토 항목 삭제해라라는 성명 내실 의향 있으시나요?

○**증인 이종호** 저희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네이버에서.....

○**이해민 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증인 이종호**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민 위원** 제가 그러면 다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추가,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과기부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박민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는 R&D 예산안 상세내역, 본 위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박민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 파일을 받긴 했는데 상세 예산 내역이 아니라 한글 파일 20쪽짜리 설명 자료였어요. 이미 저희 의원실이 지난달에 엑셀 파일로 작성 양식까지 첨부해서 충분히 검토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요청을 형식까지 맞춰 드렸는데, 왜 그 양식이 아닌 일반적 스무 장짜리를 보냈습니까?

○증인 이종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정부 내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9월 달, 9월 1일인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 파일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박민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 왜 또 드리냐면요 과기부가 작년에 부처의 역할을 다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정부 내 협의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을 계속 어겨 가면서 과기부가 자기 역할을 못 하시니까 최소한 국회한테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기본적인 행정부 내 협의 관례를 깨고 ‘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기부가 언제까지 기재부에 이래라저래라 이야기만 들을 겁니까? 과학기술부는 말이지요 기초연구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재부에게 본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부처여야 됩니다. 장관님은 훌륭한 과학자지만 과학기술계 주무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저 뒤에 20년, 30년 동안 고생하는 공직자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호 위원님 말씀 아주 잘해 주셨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현장과 소통하려고 올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또 기재부 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다행히 뭐 이번에 보도자료로 역대 최대 R&D 예산이라고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본인 입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 글로벌 R&D, 그 IP가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한 이런 이상한 연구에나 돈을 쏟아붓고, 원래 기초연구에 중요한 기본연구라든지 생애 첫 연구 사업 이런 건 아예 폐지됐더라고요. 이런 거 이번에 복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한테. 정말 이번만큼은 과기부가 기초과학 연구에 맞춰서 소신을 지키고 기재부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제일 선봉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뀐 체제에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봉지속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신성범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조금 더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휘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김우영 위원님도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우선 저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2차관님한테도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받기까지 결국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8㎇ 대역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인데 나머지 그러면 음성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전국 커버리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증인 서상원** 안녕하십니까? 스테이지엑스 서상원입니다.

우선 28기가 주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기술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기가 주파수는 사업성을 위한 주파수라기보다는 고객 경험,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보니 저희는……

○**이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28㎇ 대역에서 기존의 통신 3사가 운영에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인 서상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국……

○**이준석 위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증인 서상원** 전국 단위 로밍을 해야 하다 보니 저희가 우선 투자한, 기술 혁신을 해서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 줌으로써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기존에 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단순히 기지국뿐만 아니라 유선 백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싸게 임대받아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증인 서상원** 그건 저희가 기술을 투자하고 혁신을 하고 거기에 따른 R&D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그에 대한 이제……

○**이준석 위원** 지금 당장 이런 서비스 오픈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장기

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28GHz 대역만 가지고 MNO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서상원** 지금 당장 3년간 투자를 하는 걸 전제하고 사업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지파이브만이 아닌 야놀자, 더존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같은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 원가 경쟁력이 MVNO 사업을 하실 때는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증인 서상원** 국내에 있는 MVNO 사업자는 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기업으로서 그래도 5년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R&D 투자를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전에 예를 들어 더존이라든지 방금 열거하신 기업들은 각자의 서비스가 있고 그것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들을 MVNO 사업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증인 서상원** MVNO는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결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준석 위원** 더존이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면 더존의 어떤 부분이 MNO로 됐을 때 더 협력이 강화되는 거지요?

○**증인 서상원** 더존 같은 경우는 B2B로 1위 기업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증인 서상원** 그러다 보니 B2B 기업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확보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통 MVNO 사업자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은행의 경쟁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는 형태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이, 더존이 MNO일 때 더 강화될 측면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증인 서상원** 일단 지금 MNO라고 되어 있는 그 통신서비스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입·시행부터 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걸 저희가 혁신하는 데 노력을 지금까지 했고요. 과기부가 제공하는 샌드박스라는 나름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게 원스톱으로 계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투자자 보고 더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약간 혁신이 모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추가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 예.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앞서 참고인 질의에 7분을 썼는데 처음으로 본질의를 하는 것 이어서 5분을 써도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이정현 위원** 저에게 5분을 주시면……

○**위원장 최민희** 5분을 안 쓰셨네요. 5분 쓰셔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5분을 좀 다시 잡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 민원을 다시 철회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앞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권익위……

○**이정현 위원**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권익위 조사하고……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개인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입찰 민원도 낸 것이 아니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민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본인은 책임도 없고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만약에 청부 민원이나 민원 사주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류희림** 예,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개인 민원이 아니어도 청부 민원이나 민원 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증인 류희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께서는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날이 언제지요?

○**증인 류희림** 2023년 9월 8일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9월 8일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던 날, 정민영 전 방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떠나기 직전에 그 외국에서 해촉을 인가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되던 날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의 정치적 구도가 크게 바뀝니다. 여당 추천 위원이 4명이 되고, 야당 추천 위원이 3명이 돼서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외국에 나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왜 해촉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때문에 해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무슨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이 됐을까요?

○**증인 류희림** 정민영 위원이 변호사였는데 방송 심의를 하면서 MBC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서 MBC 측의 소송을 대리하고 변호인 역할을 했었는데 MBC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였지요. 그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 당시 권익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당시 대통령실도 이런 이해충돌 행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신뢰성을 해손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신뢰성을 해칠 이해충돌 행위였다고 평가를 했던 건데, 이것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맞겠지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이해충돌에 대한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된다면 위원장께서도 해촉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가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2018년 3월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이 파면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고 있지요?

○**증인 류희림** 예.

○**이정현 위원** 전 방송심위 기획팀장인데, 이 기획팀장이 왜 파면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정현 위원** 2011년부터 6년 동안 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46건의 방송 민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다, 충분히 민원으로 낼 만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타당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민원을 내게 한다거나, 본인이 대리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직원도 파면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의 동생 그리고 위원장의 가족들, 위원장의 지인들이 대리로 아니면 사주를 받았든지 청탁을 받았든지 지금 민원을 제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라든지 권익위 조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증인 류희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증인 류희림** 방금 지난 직원의, 팀장이 40여 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리 민원 신청한 그 사건은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파면이 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건 아는데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문하십시오.

다음은 박충권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상 장관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원래 2050억 원 자본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데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납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엑스 측은 애초에 자본금을 일시 납부할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4이통사에게 4000억 원 규모의 어떤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 오히려 부실 사업자 참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의 부실함과 안일함도 문제지만 정부 절차에도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통사 진입 문턱이 높아서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법이 개정돼서 신규 이동통신사 등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에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주파수 할당 신청 고시에는 경매의 경우 할당 심사 시 재정적 능력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했지만 등록제로 변경한 다음에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해석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스테이지엑스와 과기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애초에 이런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통신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장관님. 신규 사업자 정책을 전면 보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 50초 안에 말씀하시고요. 끊습니다.

○**증인 이종호** 스테이지엑스에서 2050억을 이렇게 미쳐 다 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구성이 달라졌고 주주의 지분도 달라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본금 납입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재정능력 검증은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바뀌어서 경매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검증이 된

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서도 그런 형태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자…… 그 뒤에는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이걸 허용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사실상 질문 시간이 4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까지 답변을 하게 되면.

○**박충권 위원** 하나만 좀…… 차관님 말씀 하나만……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지요, 요약해서.

○**증인 강도현** 재정능력, 부담능력을 조금 낮추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나중에 정책금융을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를 평가하겠지만 그렇게 정리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재정능력 문제는 한 번쯤 다시 점검해야 될 제도적 보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충권 위원님도.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7월 27일 내부망에 게시글 올라온 거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방송위 소위에서 김유진 위원한테도 게시글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발언할 때 ‘내부망에 올라온 그 게시글이 아닌 이런저런 다른 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내용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 보고를 안 받았고 그 뒤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부망의 글도 알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위증을 하고 계세요. 명백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기록도 부인하고 있고 명백한 위증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0월 12일 이후에 세 차례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아까 정민영 위원은 그래서 해임됐다고 하는데—그걸 위반하고 계속 직접 민원 처리를 주도했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증인 류희림** ……

○**이훈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계속 MBC에 대해서 표적심의를 했는데, MBC가 문제가 있다…… 조금 아까 나온 기사인데 MBC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선호도 21%로 1위를 했어요, 2분기에, 2024년 2분기, 3분기 연속 1위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류희림 위원장님 취임 후에 계속 MBC가 1위를 했어요. 그 전에는 한 자릿수였어요, 지금 선호도가 21%인데. 그리고 저번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도 신뢰도 1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MBC가 마치 문제가 있는 언론사처럼 해서 표적심사를 계속하는데, 국민들도 그리고 조사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래도 이게 표적심사가 아니에요?

○**증인 류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훈기 위원** 국민들은 바보인가요?

○**증인 류희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심위원들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의를 했고……

○이훈기 위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근태 기록이 없다 그랬는데 오후에 계속 자리를 비워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증인 류희림 계속 자리를 비운 적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오후에 어디 간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증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어디를 가시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사라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증인 류희림 제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고 그거를 기록에 남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긴 한데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 사적으로 놀러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공직자인데? 업무 시간에 뭘 하시는지 알면 안 됩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요, 위원장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류희림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시고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봉지욱 참고인 좀 나오세요.

○위원장 최민희 7분 드리세요, 7분.

○신성범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JTBC의 사회탐사팀에 있을 당시의 보도의 취지는 결국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도에 대장동 관련 혐의로 조우형을 조사하고 계좌 압수까지 했는데 봐줬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이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우형은 여기에 나온 녹취록에 의하면 출기차게 자기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도에. 한번 보세요. 2021년 10월 26일 날 오전에 조우형 씨와 참고인의 지시를 받은 PD 간의 전화 한번 보세요. 조우형이 뭐라고 하느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에 관해서는 문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봉 기자의 보도를 보면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입니다, 주임검사’ 그리고 여기에 또 ‘저한테 와 장창 계좌 압수수색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도 안 받았고 2012년도에 내가 조사를 받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대장동이 아니라 풍동 개발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중앙지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조사받았다—12년도는 없애 버리고—계좌 수색이 날아왔다…… 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다, 다 비틀어 버렸잖아.

○**참고인 봉지욱** 답변드릴까요?

○**신성범 위원** 아니, 짧게 해 봐요, 내 질문에.

2012년도를 왜 빼먹었어요? 2012년도에 조사받았다, 2012년에는 막 날아왔다, 이거.

○**참고인 봉지욱** 2011년에 본인이 처벌받지 않았고 조우형 씨는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월 받는데요……

○**신성범 위원** 아니, 이거요. 봉지욱 씨, 내가 물어보잖아요. 11년도에는 대장동 대출에 관해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참고인 봉지욱** 2014년 경기경찰청에서요……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 2011년도……

○**참고인 봉지욱** 조우형 씨를 조사했습니다. 조우형의 진술조서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이 양반아.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거 아니오?

○**참고인 봉지욱** 2014년 경기경찰청 조우형의 진술조서에 조우형 씨 스스로……

○**신성범 위원** 무슨 소리야!

○**참고인 봉지욱**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 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제가 대출 커미션 받은 것 때문에 모두 수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 계좌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반복해서 경찰에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2022년 2월 21일 자 귀하의 보도는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우형이가’. 안 받았잖아?

○**참고인 봉지욱** 예.

○**신성범 위원** 그런데?

○**참고인 봉지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조우형 본인의 경찰 진술조서에 자기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도 받고 계좌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자, 그다음, 조사를 받은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를 받은 것은 김 모 수석의 김양 씨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사받은 거잖아요?

○**참고인 봉지욱**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을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가 조우형을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참고인 봉지욱** 지금 저희가 계속 앞뒤 상황과 관련 판결문까지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까?

○**신성범 위원** 아니, 보도 당시에는 귀하가 갖고 있던 소스는 이게 다 아니오? 그냥 마음대로……

○**참고인 봉지욱** 아닙니다. 경기경찰청의 그 진술조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가, 경향신문도 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신성범 위원** 자, 그러면 조우형의 진술조서 보자고, 누락된 거.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할 때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박그룹 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거

나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도는 뭐가 됐어요? 커피 타 준 거로 돼 있잖아요.

○참고인 봉지욱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에요……

○신성범 위원 아니, 남욱은 믿고 귀하는 귀사의 A PD가 녹취해 온 조우형은 하나도 안 믿는 거네?

○참고인 봉지욱 남욱 변호사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 때도 반복해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서 조우형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해서 진술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밝힙니다만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2013년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하시고 2014년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조사 때 조우형을 변론해 주셨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성범 위원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참고인 봉지욱 그렇다면 아무런 관계없는 대검 중수부장이 퇴임을 하고 어떻게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신성범 위원 아니, 그 문제는 김홍일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그 모든 걸 뒤집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거는 선입견이나 뭐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명색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모든 걸 빼먹고 뭐지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참고인 봉지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 보니까 계좌 압수수색 등 모든 것들을 판사가 사실조회를 해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6개 언론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문란, 1급 살인죄까지 운운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신성범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저는 그러니까 당시 기자로서 귀하가 갖고 있었던 뭐랄까, 소스나 이런 게 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발췌해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짜깁기하고 이렇게 보도를 해 놓고는 지금 와서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하니까 속칭 말로 열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JTBC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신성범 위원 이것도 역시 검찰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런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거고 그게 기사화돼

서 그렇게 JTBC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성범 위원 검찰과 JTBC의 기획이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인 봉지욱 지금 답변드릴까요?

○신성범 위원 예.

○참고인 봉지욱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됐고요. 9월 4일에 국회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이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판 방통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것 할 거다’라고 하자 약 1시간 뒤에, 그러니까 9월 4일 오후 5시 반부터 김홍수 그리고 박우귀, 류희림 위원장과 관계된 분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대통령이 ‘이것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9월 6일에 JTBC가 사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따로, 방심위 따로, 방통위 따로, 용산 대통령실 따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사전에 모의가 된 것이고 기획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6조에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는 참고인입니다. 증인도 아니기 때문에 호칭이나 그런 것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이종호 장관님, 아까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해서 대응체계를 잘 마련해서 대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일본은 보면 훨씬 더 다 치밀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인가요, 아미라……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그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중요안보정보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서 굉장히 더 센 힘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관련해서 한일투자협정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외교부 사항인가요, 산자부 사항인가요? 외교부입니까?

○증인 이종호 예, 외교부……

○**조인철 위원** 거기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인철 위원**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증인 강도현**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정됐던 결의안에도 외교부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적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최혜국대우부터 각종 적용 부분을 외교부가 살피고 있고 저희도 상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할지 말지의 여부는 7월 1일 대책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이 나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건지 피해가 있다면 네이버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제분쟁 절차로 갈지 말지는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조인철 위원** 하여튼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입장에서 자율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뒤에서 큰 뒷배가 좀 돼 줄 수 있도록……

○**증인 이종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응체계를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테이지파이브 최 대표님이신가요? 서 대표님이신가요?

○**증인 서상원**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대기업들도 다 물러나셨는데?

○**증인 서상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 아까 이준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8기가 기준으로 기술 투자를 해서 저희 나름의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면 지하철부터 했을 때 1000만이 매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통신 3사가 기투자한 것을 저희가 중복 투자하지 않고……

○**조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서상원** 예, 충분히 되어 있고요. 앞서 저희가 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것……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자본금을 충당 못 한 거지요?

○**증인 서상원** 조금만 얘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술과 사업 내용은 좀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페이지 마크한 곳에 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인가 할당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주파수 대금 납부하고 이후 자금 계획들이, 저희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명시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말씀하신 두 가지 위반사항이라고 한 것도 자본금 요건이 법령사

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것, 이걸 제외한 부속 서류들이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예정 정관을 포함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용계획서에 근거돼서 제출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2050억이 5월 7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고, 등록제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저희 스테이지파이브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반으로, 앞서 이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만은 아니고 저희가 9만 5000입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100만의, 단말기를 저희가 직접 개발 또는 폭스콘과 같은 유통을 했던 알뜰폰사업자로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할까요?

○증인 서상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황성욱 상임위원님 나와 주세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이 왜곡이 아닙니까? 왜곡 보도 아니냐고요.

○증인 황성욱 그 녹취록 원본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어떻게 달랐습니까?

○증인 황성욱 주어가 박 모 검사로 조우형 관련……

○박정훈 위원 커피 타 준 주어가 박 모 검사라고 얘기했는데 주어를 생략했지요?

○증인 황성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래서 커피 타 준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보게 왜곡을 했습니까?

○증인 황성욱 윤석열 검사로 읽혀졌습니다.

○박정훈 위원 원문에는 ‘윤석열하고 커피 마셨냐, 어느 검사 만났냐’ 다시 물어보고 ‘아니다. 윤석열하고 만난 게 아니다. 박 모 검사다’ 분명히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도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왜곡했지요?

○증인 황성욱 나중에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 대화는 그 전년도, 2021년 9월에 녹취가 된 거니까 6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한 것 맞지요?

○증인 황성욱 예,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 뒤에 MBC가 다음 날 메인 뉴스에 일곱 꼭지를 연달아 보도한 것 맞지요?

○증인 황성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MBC 사과했습니까?

○증인 황성욱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왜 안 했습니까, MBC?

○증인 황성욱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걸 일곱 꼭지나 대선 전전날에 보도하는 게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황성욱** 중요한 보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황성욱**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매체가 보도한 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게 언론의 의무 아닙니까?

○**증인 황성욱** 그것은 각자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원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언론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선 직전에 완전히 왜곡한 보도를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황성욱** 이렇게 원래 소스하고 다르게 보도된 경우는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는 대로 보도를 했다면, 이것을 짜깁기하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윤석열이 커피 타 주어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증인 황성욱** 나중에 드러난 원본에 비춰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렇게 왜곡보도를 했는데도 뉴스타파에서는—지금 여기 봉지욱 씨 나와 있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진실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황성욱**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뉴스타파 봉지욱 씨 나와 계신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실관계 정정은 의사진행발언 대상 안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최민희**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위원장님아…… 제가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자료 제공 차원에서 하십시오.

2분입니다. 2분.

○**노종면 위원** 대선 전 3월 6일 자 뉴스타파 보도가, 김만배 씨 녹취록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준 것으로 그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제가 다른 주장 안 하고요.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라고 하면서 녹취를 이렇게 신습니다.

그리고 녹취에 뉴스타파가 친절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팔호도 넣었어요. 이게 조작 의미가 아닌 것은 들으시면 알 겁니다. “누가? 박00 검사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00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물어보더니) 보내 주더래” 이렇게 보도했어요. 인용한 다른 테

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정훈 위원** 그 뒤에, 거기 뒤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 읽어 주셔야지요.

○**노종면 위원** 그것 읽었잖아요, 지금.

○**박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이 기사의 야마는 윤석열이 커피 타 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예요.

○**노종면 위원** 이것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노종면 위원** 그것 제가 지금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박00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보내 주더래”라는 녹취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는 대목도 그 당시에 썼고요. 맞습니다. 썼고, 녹취록에 있는 것도 저도 그것은 확인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반박하십시오.

1분 30초 드리십시오.

○**박정훈 위원** 이 기사의 주제 자체가 대장동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보도의 취지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하고 커피 마시고 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에 이걸 보도하면서 책 세 권을 1억 원 넘는 돈으로 사 주는 관계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6개월 전에 녹음된 것을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한 것을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언론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보도했다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께서도 언론에 계셨으니까 언론사의 대선후보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잣대를 이쪽의 문제, 저쪽의 문제 공평하게 다 살펴보게 되는 게 그게 공정한 후보 검증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처럼 지어내서 만든 것을 검증이라는 그럴 듯한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두 분 말씀 잘 하셨지요?

○**노종면 위원** 저는 사실관계만 지적한 거고 지금 여기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가……

○**노종면 위원** 제가 말을 안 하면 동의한다는 것처럼 기록에 남을까 봄……

○**위원장 최민희**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왜 두 분께 시간을 드렸냐면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거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예.

○**박정훈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한민수 위원** 의사진행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하세요.

마침 한민수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 시간을 쓸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한민수 위원 그 시간에다 제가 할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참고인 질의하십시오. 참고인 질의를 하시든가 어쨌든……

○한민수 위원 참고인 질의로 7분을 써 볼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참고인 질의 7분 여러 분이 쓰셨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봉지욱 기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3분으로는, 제가 원래 4이동통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오시지요. 봉지욱 기자 나오고, 저도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대선 때 공보단 일을 했으니까. 자꾸 지금 김만배 무슨, 뭐 이것, 잡은 권력이니까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감장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사진을 흔들어댑니다, ‘이재명 도지사 20억 원 조폭 자금 받았다’. 20억 원입니까, 수억 원입니까? 그런 보도 기억나시지요?

○참고인 봉지욱 저희 뉴스타파에서, 박철민 씨 편지나 돈다발이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저희 매체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매체들 사과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장영하 변호사님은 아마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우리 당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당’ 표현이,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지요. 수사가, 재판받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를 폭로하고 그러고는 멀쩡하지요?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 보도한 언론사들 사과했습니까? 그것을 보도한 종편들 대대적으로 틀었지요, 속보를 비롯해 가지고? 기억나시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한민수 위원 수많은, 진영에 따라서 무리한 뉴스, 검증하는 뉴스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들어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아닙니까, 출발이?

○참고인 봉지욱 예.

○한민수 위원 커피를 누가 탔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묻었잖아요, 수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2021년 9월에 허위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박정훈 위원님께서는 그 허위 인터뷰 내용을 또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한 게 또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했다면 그대로 틀면 되지 그걸 왜 편집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허위 인터뷰라고 얘기한 적은……

○**위원장 최민희** 아니, 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한민수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 기획했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잠깐 멈추시고요.

○**한민수 위원** 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왜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멈추시고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그거 빼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뺏어요.

○**한민수 위원** 그렇게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본인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아까 봉지욱 기자가 쭉 요일별로 한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대적인 수사단을 꾸렸어요, 검찰이.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고요. 10명 이상의 수사단을 꾸렸다가 지금은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법조기자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저에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주거나 김병욱 의원을 제가 만났다거나, 처음에 암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나왔으나 관련해서 밝혀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언론계에서 그래도 신뢰들을 갖고 있는 언론이 쓴 칼럼을 봤습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특징’, 한 번씩 일독을 제가 권할게요.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은 그냥 마구잡이로 돌을 던진답니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나중에 무죄가 나거나 말거나 돌을 던진답니다, 그중에 한두 개만 맞으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수사를 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야당과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수사 들어가고 기소하면 못 참고 나자빠진다고, 패가망신하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시간 아까우니까 이 말까지만 하고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 합시다. 대선 때 캠페인 했잖아요. 뒤에다가 백드롭 쳐 가지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합시다. 왜 그걸 거부권을 씁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뚫뚫 뭉쳐서 폐기시켜 버리고……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당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봉지욱 기자 범인이라면서요. 범죄자로 취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합시다. 진실을 밝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실상을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참고인 봉지욱** 예.

○**한민수 위원**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류희림 위원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본인이 시작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아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몇몇 민주당 쪽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류희림 위원장이…… 저도 아까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나.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부 민원 의혹이 정말 단독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움직였을까…… 취재하면서 다른 느낌 같은 건 없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일단 채 해병 사건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전화,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듯이 그리고 용산의 번호가 나왔듯이 지금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 기록만 확인을 하면 용산과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이게 움직였는지 정황, 그 사실들이 다 밝혀질 텐데 사실상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권익위 신고서에 대한 취재도 하신 것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예.

○**한민수 위원** 보면 ‘사무처 팀장에게 민원 신청 현황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없다’, 류희림 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조사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이 진정성 있고 진실로 보입니까?

○**참고인 봉지욱** 오늘 아까 나왔던 카카오톡 화면 있잖아요. 카카오톡 화면 그 직원들끼리 나눴던 것인데 제가 볼 때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카카오톡을 그 직원들이 오늘 이렇게 쓰일 줄 알고 사전에 조작했을 리는 없어 보이니까…… 팀장이 갔다, 보고 와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여러 민원이 취하되기 시작했고 약 4일 동안 계속 민원이 취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8일부터는 관련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한민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대선 때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10월 9일 자 보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 아니냐,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검찰과의 관계자인지 뭔지 아무 소스가 없는 보도였는데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은 대장동의 숨은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서 한 두 달간 보도가 지속이 됐고 급기야 2022년 1월에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장동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또 보도를, 오보를 한 거지요.

저희가, 뉴스타파가 지난해 1월에 정영학 녹취록 1325쪽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지만 그 어디에도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의 숨은 주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그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인데 그렇다면 대선 당시에 이 대장동 그분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수많은 역측, 추측 보도를 한 매체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보도를 한 매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으로서는 대선후보에 유력

한 후보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로 맞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요.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가 지난주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을 24.8조 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하셨지요?

○증인 이종호 주요 R&D,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하고 국회가 확정한 주요 R&D 예산, 24.7조 원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지난해요?

○황정아 위원 예.

○증인 이종호 지난해가 아니고……

○황정아 위원 23년도.

○증인 이종호 23년도……

○황정아 위원 예, 시설비 이런 조건 붙이지 마시고 24.7조 원.

○증인 이종호 예, 23년도예.

○황정아 위원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 2023년도 24.9조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시면서 자화자찬하며 발표한 내년도 예산 24.8조 원보다 사실상 1000억 원이 많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호 거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인프라시설……

○황정아 위원 짧게……

○증인 이종호 인프라시설 구축이 있었는데 그게 주요 R&D에서 일반 R&D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사실상 숫자를,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의 모수를 과기부 멋대로 재단하고 바꾸고 수정하면서……

○증인 이종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이종호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지난해 예산이 24.9조 원이 맞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9조 원, 23년도.

○증인 이종호 24.7이 맞습니다. 거기 2000억 원가량이 아까 인프라시설비로, 일반 R&D로 갔습니다.

○황정아 위원 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 데……

○증인 이종호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올해랑 내년도의 물가상승률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실질 R&D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물가상승률……

○증인 이종호 실질 R&D 예산이라는 게 뭐지요?

○황정아 위원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물가상승률 올해와 내년도를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 R&D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 이종호 제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올해 물가상승률은 2.6%, 내년도 2.1%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입장을 전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23년도 대비 4.2%, 약 1조 원 삭감되는 꼴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R&D 정책 실패했다고, 실패 인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정책 실패 인정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물가상승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23년도 기준보다 높게 책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그다음에 우리가 선도형 R&D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체질 개선을 해서 제대로 제도도 개선하고 그 제도 개선된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바뀌었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아까…… 안 해도 되시겠습니까?

○박정훈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아까 잠깐 기회를 드린다 그리고 까먹어 가지고……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제가 꼭 황정아 위원님의 주제와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지금 정부 R&D 전체 예산이 어쨌든 토텔 다 합쳐서 29.4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R&D가 100조 원이 넘은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100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R&D 100조 원 시대가 넘은 이 시점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술투자에 대한 것은 해야 되고 실제로 100조면 기초연구가 15조, 응용기술연구 21조, 개발연구 65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화 가는 데 65조 정도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 R&D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면 단순한 국가 R&D 예산을 넘어서 새로운 R&D에 용자를 해 줄 수 있는 지원 형태가 이제는 정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용자형 R&D 지원은 기업의 R&D 자금을 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그것들을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

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들을 기업에서 꽂을 피우려면 그들이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R&D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가 좀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새로운 기술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딥테크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R&D 지원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R&D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숙을 했으면 계속해서 정부 R&D 비용보다는 자기가 기술금융을 하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빌리게 되면 정부가 이자 부분을 좀 경감을 시켜 드려서 책임 있는 어떤 R&D 개발을 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모델로 가야지 우리나라가 좀 건전하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결국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뿐 아니라 민간의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들을……

○**증인 이종호** 펀드도……

○**최수진 위원** 펀드를 계속 보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민원 사주의 본질은 심의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사주 또는 청탁에 의해서 심의 신청이 이루어진 그 절차적인 부당함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요. 어떻게 류희림 위원장 한 사람의 가족과 지인 70여 명이 단기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나, 그게 도대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앞서서 이런 민원이 무슨 사적인 내용이었을까라는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은 YTN PLUS 대표 등으로 재직할 때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 1년에 십여 차례 했고요 친누나 곱창전골집을 포함한 그런 홍보성 콘텐츠들을 수십 건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액트지오와 관련된 분석 결과 자문회의에 우리 연구원분들이 참여하셨지요?

○**증인 이평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들려리셨던 것 아닙니까?

○**증인 이평구** 그것은 본인한테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자문회의가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루어졌

을까요?

○**증인 이평구** 자문회의는 제가 듣기로는 액트지오에서 보고서 나온 시점이 아닌가요?

○**노종면 위원** 아닙니다.

○**증인 이평구** 왜냐하면 그 자료를 갖고 액트지오 사장이라는 분이 그날 11월 자문 때 오전과 오후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그 뒤에 나왔습니다, 액트지오의 보고서는.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로부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그 자문회의, 액트지오의 대표인가 누군가가 참여한 그 자문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로데이터 이런 자료 제공 없이, 그냥 일방적인 PPT 브리핑이었대요. 이런 게 자문회의가 맞습니까?

○**증인 이평구** 저도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 자문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와 진행된 사항이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노종면 위원** 확인하셨다니까,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이 기사들 보십시오. 여기에,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기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현석 연구원 박사 등이 배석했다’. 아브레우 고문 귀국했을 때 저기 왜 배석을 합니까? 그리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이현석 연구원 박사 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특위에도 참여하시고.

연구원이 왜 이렇게 활용당합니까?

○**증인 이평구** 지금 노종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오늘 국회에 3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시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보고된 사항이고 저도 오늘 처음 안 사항인데요. 제가 견지하는 것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출연연구원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떨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평구** 예.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봉지욱 참고인 좀 볼까요?

○**위원장 최민희** 7분 쓰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7분 드리십시오.

○**최형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분들은 별로 답변도 안 하시는데 빨리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최민희** 안 됩니다.

○**최형두 위원** 봉 참고인, 산케이 신문기자 이야기를 하셨지요, 산케이 전 지국장?

○**참고인 봉지욱** 예.

○**최형두 위원** 무죄 나왔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최형두 위원 허위 뉴스가 아니어서 무죄 나왔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재판부가 허위라고는 본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명백히 허위라고 봤지요.

지금 우리가 언론 자유를 매우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탐사보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이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허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하신 역울함이 있으면 이 사안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야 대선 전 여러 검증 보도라는 이름으로 된 것 중의 하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주 기획성이 농후한 보도였고, 역지사지를 해 보실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언론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재작년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라 그래 가지고 징벌적 손배소도 내고 그러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저는 문제위원으로서 그것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고 진짜뉴스 재갈법이다 해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봉지욱 참고인이 그 같은 허위 뉴스, 우리가 지적하는 허위·조작 뉴스에 가담했으면서도 검찰에 구속되지도 않고 이렇게 국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마음대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또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 폭넓은 재량과 폭넓은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지욱 참고인이 했던 보도가 제대로 된 검증이 됐다거나 무슨 완벽한 크로스체크가 됐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우선 산케이 신문 판결문 읽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전부 가짜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기자라고 해서 국내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인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 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에 대한 비판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마찬가지로 봉지욱 참고인이 조사받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도 이 같은 법리에 따라서 아주 폭넓게 재량권이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학림, 김만배 두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돈거래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 봉지욱 참고인도 계좌추적을 당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계좌추적은 통상 6개월 이후에 오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거 뭐 함부로 합니까?

언론 자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2단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막 국회법도 잘 안 지키는 사례가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봉지욱 참고인이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육하원칙도 어기는, 연도와…… 아니, 같은 사람이 2011년에 했던 일하고 2002년에 했던 일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에 했던 일을 2002년에 끼워 넣어 가지고, 그것이 허위·조작이지요. 허위·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신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케이 신문 재판 그것도 거기서 우리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에 부여하고 있는 자유……

그때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저널리즘 리포터가 대단한 것인 양하는데……

산케이 뉴스 나왔으니까 말인데, 봉 참고인은 산케이 신문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자, 매우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언론이다, 매우 극우적이고 대한민국에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이다, 어느 쪽입니까?

○참고인 봉지욱 통상적으로 보수 극우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극우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반대로 아사히 신문은 어떤 쪽입니까?

○참고인 봉지욱 진보 성향의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크로스체크해 보면 아실 텐데, 로이터저널리즘 일본 편에 보면—이것은 2023년입니다—신뢰도가 산케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리포트 보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여기서 워스트·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위로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예사로 순위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지표가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 구독률 조사지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신뢰 않는 뉴스를 굳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갤럽 조사, 갤럽의 최근치 MBC 뉴스, KBS 뉴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KBS 뉴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대해서도 왜 일부러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신문을 보겠습니까? 구독자 수가 많고 유료 부수가 많은 신문이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이와 칼로 유리한 부분만 편집을 해 가지고, 그게 제일 나쁜 왜곡 행위지요. 그런 게 허위·조작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최형두 위원님도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일보에 계셨고 위성던 특파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형두 위원님이 쓰신 기사가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짜 뉴스다, 아니다 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참고인 봉지욱 지금 이것은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산케이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사건은 아직 기소도 하지 못한 사건인데……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봉지욱 참고인을 아마도 무슨 명예훼손을, 공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언론 중재법 해 가지고 언론재갈법 만들어서 5배 징벌적 손배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도 기소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봉지욱 참고인이 아주 완벽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폭넓은 언론 자

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라는 회사가 왜 봉지욱 기자의 보도를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 는 것을 나와서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참고인은 지금 JTBC와 명예훼손이 붙어 있지요? 아마 JTBC와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봉지욱 참고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이 드러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인 봉지욱** 그것은 별건인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작년 21대 국회 때는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 범죄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최형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육하원칙부터 제대로 지키세요, 기자 교육을 했으면.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시고요.

위원님, 계속 더……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분……

○**김현 위원** 저는 질의 들어가면서……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조금 전에 인용한 갤럽 리포트, 사실관계 틀린 것 같은데 바로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기록으로……

○**위원장 최민희** 그냥 넘어가시고요.

○**최형두 위원** 갤럽 인용이요.

○**김현 위원** 아니, 속기록으로 다시 제가 나중에, MBC가 21%로 나온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최형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널슨의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김현 위원** 하여간 2024년 2분기 선호 뉴스 채널이 MBC가 21%고 KBS가 15%고 YTN이 10%고, 그렇게 해서 보수층 과반 지지는 TV조선이 있지만 MBC 선호 성향은 진보층이다 이런 내용들로 죽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갤럽 얘기를 하셨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요, 갤럽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잠깐만, 그건……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론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두 번째 갤럽 말한 부분은 조금 실수고, 시청률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널슨이지요. 널슨코리아 시청률 조사를 제가 연급한 겁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갤럽이 아니었던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지요.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현 위원** 아니요, 갤럽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잡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위원장 최민희** 이제 바로잡았고요.

○**김현 위원** 봉지욱 증인……

○**위원장 최민희** 봉지욱 참고인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7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나오셨습니까?

밤늦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우형이 2011년에 윤석열 검찰 수사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2014년 재수사 때 조우형이 2011년에 조사받았다는 진술조서에 근거했다고 봉지욱 증인은 말하는데 계속 이 것을 부정하고 2011년 조우형 조사 근거가 없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참고인 봉지욱**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커미션 받은 것 때문에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계좌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조우형이 경찰에 진술한 진술조서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지금 그것 외에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 봤더니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관련 판결문에 조우형이 관련 사건으로 김양 부회장과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또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방송통신 심의를 뉴스타파가…… 2023년 11월 13일 6건 과징금 최종 결정이 났었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김현 위원** 그게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받고 있었나요?

○**참고인 봉지욱**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는 신문법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문 등록을 취소하려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한 것은 그러면 다……

○**참고인 봉지욱** 인용 보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가족들 민원 내용을 보면 JTBC의 2월 달 보도가 3월 달에 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대로 앞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JTBC에 대해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지요.

○**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6건 관련해서 류희림 위원장이 몇 번이나 심의에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참고인 봉지욱**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회에 걸쳐서 참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위반이 돼서 고발당해 있고 언론노조로부터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고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뉴스타파 지금 혐의 기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공직에 더 이상 몸

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무리하게 해임이 됐거든요.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심위원장이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회피돼야 되거나 제척의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로 해야지만 이것이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취재한 것 내용을 종합해서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봉지욱 그런데 이미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주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족과 지인이, 심지어는 그 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 몰래 그 민원을 아들이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조카가 9월 4일에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민원을 넣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팀장 1명이 파면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장이 방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일을 벌였다면 인정하고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김현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행선지가 불분명하고 근무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심의를 아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면 독립 언론사로서 뉴스타파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일단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들을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 특히 지상파 방송들이 굉장히 꺼리고요.

특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저희가 관련 특종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한다고 해도 내용은 인용하지만 저희가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심인보 기자 등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룬 뉴스타파 기자들이 출연을 하면 방심위에서 그걸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앞서도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보도, 사실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김혜경 부인에 대한 언론 보도도 굉장히 왜곡이 많았고 심지어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만 당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됐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앞서 ‘사과하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분 25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혹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제 답변의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봉지욱 이렇게 장시간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또 하고 있어서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증언으로 인해서 거의 교차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심지어…… 이것은 사실 꼭 반드시 수

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류희림 위원장이 조만간, 이번 달인 7월 22일쯤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민을 한번 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 쪽에 이민을 가 봐야 되나, 뉴질랜드 쪽에 해야 되나,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 나라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이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요.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반드시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잠깐 기다리세요. 제 5분 중에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봉지욱 기자에게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듯한, 녹취를 조작한 듯한 그런 질의를 받으셨잖아요.

○참고인 봉지욱 예.

○위원장 최민희 혹시 취재 안 하고 조작해서 기사 쓰신 일 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런 일은 없고요. 단순히 녹음을 하나 했다고 해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복수의 증언, 그 복수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도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 저는 제가 한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확률로 한 80% 정도였다면 지금 상태에서, 특히 채 해병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 아무 관계가 없는 임성근 사단장을 왜 저렇게까지 구하려고 했을까라는 이런 의혹을 봤을 때, 그렇다면 윤석열 주임검사는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을 왜 구하려고 했을까 똑같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언론인으로서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보도를 하고 싶어서 뉴스타파에 왔고요.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가리지 않고 보도합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관련 보도도 저희가 했잖아요. 단순히 저희는, 심지어는 유튜브 수익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는 저희 독자나 후원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성역 없이 보도하고 싶어서 뉴스타파로 왔고, 소재가 없어서 보도를 못 하면 모를까 어떤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서 보도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류희림 위원장께 마이크 주십시오. 그리고 황성국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류희림 위원장께 마이크 드리세요. 힘드세요.

○증인 류희림 마이크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 세워 주세요.

マイクありますか?

○증인 류희림 예.

○위원장 최민희 시작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9월 27일 게시판의 ‘왜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충돌 관련해서 뭔가 하지 않느냐’는 그 게시물 못 보셨다고 하셨지요?

○증인 류희림 당시에는 못 봤고 그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아니,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증인 류희림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월 며칠입니까?

○증인 류희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월 며칠입니까? 여기 와서 왜 함부로 말하세요?

○증인 류희림 아니, 기억이……

○위원장 최민희 몇 월 며칠인지…… 이 중요한 사실을 그런 언론 보도 보고 알았으면, 동생이 아들이 제수씨가 아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게다가 9월 27일 게시판 사건 이후로 부속실장이 이 게시글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까지 열겠다고 했는데 그 부속실장은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 조직 엉망이네요. 부속실장이 이런 게시판에 글 올랐는데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자격 다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들 서로서로 가려 주고 감춰 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성욱 위원께 마이크 넘기세요.

황성욱 위원님, 정연주 위원장 카드 부정 사용 몇 건이었어요?

○증인 황성욱 정연주 위원장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3건, 시간 아까워서요.

이광복 부위원장 몇 건이었어요?

○증인 황성욱 정확히 기억하지……

○위원장 최민희 모르겠지요? 9건.

본인 카드 부정 사용 몇 건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증인 황성욱 정확히……

○위원장 최민희 본인 것 몰라요? 정말 몰라요?

○증인 황성욱 이십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4건.

○증인 황성욱 예.

○위원장 최민희 정연주 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황성욱 해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광복 부위원장은요?

○증인 황성욱 역시 같은……

○위원장 최민희 24건, 제일 많은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게다가 근태와 관련하여 오후 6시 이전 퇴근 비율이 본인 몇 %입니까?

○증인 황성욱
○위원장 최민희 답하세요. 몇 %예요?

○증인 황성욱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주..... 10일이면 몇 번 일찍 퇴근했어요, 6시 이전에?

○증인 황성욱 퍼센티지로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열 번이면 일곱 번이에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방심위에서 준 자료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정연주 사장 13건, 이광복 부위원장 9건, 사무총장은 2건이었지요? 그런데 잘렸어요. 그런데 24건, 가장 많이 카드 부정 사용한 황성욱 위원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제 얼굴이 부끄러워질 지경이에요. 최소한 어떤 정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거꾸로 정연주 사장이 24건이고 황 위원이 9건이면 뭐 9건이니까 남기지요. 이건 뭡니까? 거의 정연주 사장의 2배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이게 방심위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까지.

○최형두 위원 저도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형두 위원 추가질의는 1분인가요?

○김현 위원 참고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 물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리면 봉지욱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충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최민희 이미 끝났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시지.

○박충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참고인 대상으로 짧게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김현 위원 끝났어요. 나가셨어요.

○박충권 위원 그러시지요. 저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했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제일 처음이 이해민 위원인가요? 박민규 위원인가요?

○한민수 위원 순서대로 하면 이해민 위원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예, 순서대로 하면 이해민 위원입니다.

이해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이해민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을 바라보는 해외의 눈은 매섭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기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나라인지 ‘가져가세요’라면서 뒤로 빼는 나라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R&D 현장 말씀을 하셔서요. 작년에 R&D 예산 삭감하게 된 계기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예산 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 증액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놓는 과학기술 관련된 정책들이, 거기에 대한 현장 반응이 왜 싸늘한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었던 4월 신진연구에 대한 예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홍보하고 파격적 지원을 한다면서 연구과제 수도 759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선정 결과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목표에 미달한 644개 과제로 신규 선정됐다’, 이걸 보고 제 주변에 있는 신진연구 신청하셨던 현장 목소리를 제가 좀 청취를 해 봤는데, 현장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질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KAIST 대학생, 4학년 재학생, 여학생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이해민 위원** 느끼시는 게 있으셨나요?

○**증인 이종호** 그날 제가 소회도 말씀드렸고요. 그 친구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가슴이 짠하고요. 위원님 동의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달까지……

○**이해민 위원** 시간이 가고 있어서, 끝에.

○**증인 이종호** 예.

○**이해민 위원**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신진연구 결과 관련해서도 차관님이랄지 과기정통부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 목소리를 장관님께 전달하시는지, 여기 나오셔야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진연구는 청년 과학자들한테는 쌀 같은 거예요.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진연구는 폭넓게 지원을 하지요. 100만 원 예산이면 10명한테 10만 원씩 나눠 줍니다. 이번에는 50만 원, 두 사람한테 몰아준 꼴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 깎여서, 안 그래도 예산 깎여서 막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열심히 제안서 썼는데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현장 목소리 못 들어서 어떻게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시나요?

좀 전에 현장 말씀하셨고,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이야말로 갈라 먹기식 예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타 폐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까지 없애셨고요. 진짜 갈라 먹기식 R&D 예산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 반영하실 의향 있으신지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님께서 그것을 갈라 먹기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제 상식에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젊은 연구자를 위해서 48%인가 증액을 해서 뭔가 젊은 연구자들이 외국에서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2차관님에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한 번 지적했지만요, 결국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MOU도 맺었고 일본의 라쿠텐모바일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라쿠텐모바일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모델을 한국에서 시행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제4이동통신사에서 어떤 편익을 추구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강도현 고착화된 경쟁시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단가 인하 문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알뜰폰에 대해 가지고는 도매대가 산정할 때 정부의 개입을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요?

○증인 강도현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알뜰폰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지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제4이동통신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 1월에 발표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보면 이건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망 구축 지원, 상호접속료 인하,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주파수 할당대역을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을 후보로 검토해서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 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떠먹여서 만드는 게 약간 냉탕, 온탕 아닌가요?

○증인 강도현 반드시 이게 양립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알뜰폰은 알뜰폰대로 도매대가 인하 부분 그리고 데이터 턴키로 대량 할인시키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기타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GHz 플러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신규 통신의 추가적인 진입 역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후생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뜰폰 시장은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준석 위원 예,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그래서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지금 보면 뭔가 제4이동통신을 설립하고 그것을 28GHz 대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실상 저는 뭔가 28GHz 상용화 자체에 그냥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오늘 계속 질의한 거였습니다.

○증인 강도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겸 위원** 이종호 장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5.2% 늘어났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의존율이 최근 5년간 32.7%나 늘어났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의존성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추천 이런 게 심해져 가지고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 게시물에 대한 부모 동의 의무화 이게 이미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금지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우리도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증인 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청소년 SNS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좀 과하게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장겸 위원** 류희림 방심위원회 위원장님 마이크 좀 주시지요,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무슨 신속심의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방송 같은 경우 방영되고 난 뒤에 한 1년 뒤에 아직도 심의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사실입니까?

○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 보통 1년 3개월 전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거 때 임박해서 한탕한다고 하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는, 그렇게 해서 조작·왜곡 보도하고 1년 뒤에 심의를 받으면 그것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류희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규칙에, 위원장 단독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신속하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무규칙이 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 **증인 류희림** 과거 저희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할 때 여야 간에 위촉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4기 위원회 때는 7개월가량, 5기 위원회 출범할 때는 한 6개월가량 딜레이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늦게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현 위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심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떤 경우에 신속심의를 하게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우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심의를 수행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 3개월 전의 것도 심의를 못 해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9월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몇 건의 신속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대략,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지만 한 3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PPT 파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67건이었습니다. 67건의 신속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67건의 신속심의의 상당수가 뉴스타파의 인용보도에 대한 방심위 법정제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과잉 제압 논란과 관련된 보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개입 의혹, MBC의 바이든 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윤석열 정권에 좀 비판적인 기사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저기 지금 총 67건으로 돼 있는데……

○이정현 위원 예, 67건입니다.

○증인 류희림 제가 신속심의 의결한 것은 지금 28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8건입니까?

○증인 류희림 예.

○이정현 위원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정리한 PPT 파일인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 류희림 예, 그건 황성욱 위원장 전 대행 때의 39건이 합쳐져서, 28건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67건입니다.

이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방송사에 대한 징계들이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특히 MBC를 상대로 한 방송사 징계가 반복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표적심의 아닙니까?

○증인 류희림 그 28건 가운데 21건이 MBC를 상대로 한 심의였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법정제재는 8건이고 나머지 12건은 행정지도……

○이정현 위원 예, 선방심위의 법정제재도 30건이었고 그 가운데 20건이 MBC를 상대로 한 것이었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수는 문제없음도 4건이나 있었고 행정지도가 11건 정도였고 법정제재는 8건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렇게 특정 언론사, 특히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언론사에 대한 집중적인 표적심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언론 탄압

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참고인분은 나가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마저 듣지 못했는데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4이통사 관련해서 지금 통신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가 아직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핵심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지금 13만 원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 주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최신 스마트폰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통법 시행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간 통신비 절감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만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저희는 21대 국회에서 그 단통법 관련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돼서 단말기를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국민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이 폐지돼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관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네이버 사태로 인해서, 라인아후 사태로 인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의 압력이 지금 기업에 가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제거해서 우리 기업이 기업 자체적인, 자율적인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없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박충권 위원 그리고 우리 국회가 기업을 불러 놓고 현안질의로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행태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우리 기업들이 정말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돋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네이버 최 대표님 좀 나와 주세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일본의 무리한 조치에 속수무책 네이버, 우리 정부’인데 저것 보면 과기부하고 대통령실 등등 해서 뒷짐 지고 있고 일본은 정부, 국회, 야후재팬, 소프트뱅크 똘똘뭉쳐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라인야후가 끼어 있고요, 네이버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추가가 많이 떨어졌지요? 지금 네이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최수연** 지금 한 이십육칠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오늘 25조 9000억이더라고요, 25조 9000억. 그런데 지금 보면 저기에서 20만 원에서 16만 원 되면 얼마 정도 날아간 거예요, 지금? 5조, 7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에. 저 부분에 대해서 CEO로서, 저러니까 배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과기부에서는 네이버에서 입장을 안 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최수연** 우선 이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업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다만 이 라인야후의 한 가지 이유와는 꼭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테크기업들이 다 같이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훈기 위원** 혹시 말 못 할 사정이 있거나 네이버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게 있는 건 아니세요?

○**증인 최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배임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도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난 5월 참의원을 통과한 중요안보정보법이라고 있지요? 모르세요?

○**증인 이종호** 예,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게 무엇이 중요정보인지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한 라인망이나 라인웍스까지, 일본에 진출한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장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책도 없으시겠네요?

○**증인 이종호**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부당한 조치 또는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훈기 위원** 장관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IT 경술국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일본은 저렇게 똘똘뭉쳐 대응하는데 과기부에서 아무 역할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호**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네이버하고 소통을 계속해 왔

고 네이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훈기 위원** 장관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한가한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별로 한 일도 없으세요. 안 그래요? 뭘 하셨어요, 역할을?

○**증인 이종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외람되게.....

○**이훈기 위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네이버 측에서도 계속해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이종호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R&D 카르텔 타파 지시한 뒤로 예산이 끊겨서 중단된 R&D 사업 규모가 최소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과제를 강제 종료시킴으로써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문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서 지난달까지 3만 명이 더 넘게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미 유감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아프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초토화된 현장을 이렇게 드라마 관람평 내리듯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반성조차 없는 과기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반성은 없고 셀프 칭찬에만 한없이 후한 윤석열 정부에 현장 연구자들은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급히 R&D 추경이라도 해서 긴급자금 수혈해서 뿌리까지 말라 가는 과기계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도형 R&D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피치 못할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을 정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실직자들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최근 기재부가 세수 결손 규모 계산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최소 10조 원 세수 평크가 이미 났고 최대 20조 원까지 결손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20조 원이란 참 익숙한 숫자입니다.

과기부가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이라고 말했던 그 숫자하고 거의 근접하는 숫자 아닙니까? 부자 감세, 무능한 경제 정책만 없었어도 R&D 예산 더 많이 증액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여러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정말 그렇게 2023년 이후에 그 이상의 예산으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답변이 윤석열 정부가 과기계와 R&D를 바라보는 본질이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토양을 망가뜨리는 원죄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최수연 대표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라인 지분을 팔고 싶으셨나요?

○**증인 최수연** 저희가 사실은 회사의 자산 중에 라인야후 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비단 라인야후 지분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인만, 팔고 싶으셨냐고요.

○**증인 최수연**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게……

○**노종면 위원** 시간이 제게 얼마 없어요.

○**증인 최수연**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지분 매각 검토한 적 있어요?

○**증인 최수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항상……

○**노종면 위원** 항상 검토하고 있어요?

○**증인 최수연** 예, 지속적으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검토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경영자가 회사가 멀쩡한데 우리 지분 중장기적으로 팔 의향이 있다든가 이런 것 공표하나요?

○**증인 최수연** 그렇지 않고……

○**노종면 위원** 검토하더라도 비공개지요?

○**증인 최수연** 당연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팔 의향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십니까?

○**증인 최수연** 오늘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팔겠다 혹은 팔지 않겠다라는 답변 자체를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단기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증인 최수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노종면 위원**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증인 최수연** 단기적으로 지금 이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팔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팔겠다는 말씀을……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팔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누가 단기적이냐 장기적

이냐 물어봤어요? 그냥 안 팔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협상이 결렬됐거나 팔 의향이 없다거나 안 팔겠다 그러면 되지 왜 단기적으로 안 팔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이게 다 이해가 있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있으니까.

네이버의 라인 기술은 독보적입니까?

○**증인 최수연** 네이버의 라인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라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면 위원** 예, 라인 서비스 그 기술은 다른 타 기업이 흉내낼 수 있거나 바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증인 최수연** 서비스의 기술 자체는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의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노종면 위원** 특별한 건 없다?

○**증인 최수연**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베이스는 굉장히 특유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야후 측에서 갖고 싶어합니까? 지분을 다 인수하고 싶어해요?

○**증인 최수연** 이미 소프트뱅크에서…… 사실 지금 라인야후는 라인야후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소프트뱅크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발언에서 현재도 공동경영을 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가지는 경우에 다양한 전략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한다고 사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전에는 그런 입장이 나온 적이 있나요?

○**증인 최수연** 기업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있더라도 공표되지 않았겠지요?

○**증인 최수연** (고개를 끄덕임)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5분 드릴까요?

○**김우영 위원** 예,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너무 오래 비우시고 나타나셔 가지고……

○**최형두 위원** 이건 차례를 놓쳤지요, 포기한 거지.

○**위원장 최민희** 이상희 위원님 오셔도 5분 드릴 텐데, 그냥 5분 드리시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모두에게 5분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류희림 방심위원장님, 작년 12월 26일 자로 보도자료를 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범죄 행위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증인 류희림** 위원님, 날짜를 다시 한번……

○**김우영 위원** 12월 26일이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회에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피해 민원인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님에게 그 피해 신고를 하셨나요?

○증인 류희림 저희 민원센터에 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는 걸 누군가가 알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이나 신분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익명의 제보자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나요?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심의센터에는 인적사항을 설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지만 상담직원 외에는 나머지 저희들이 민원인 인적사항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누가 피해 민원 신고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진심으로 그렇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동생이나 처제나 제수씨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하여 어떤 집단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단서나 정보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까?

○증인 류희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본인도 답답하시지요? 그 조사를 맹계로 해서 말씀을 못 하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권익위에 빨리 조속한 결과로 처분 바란다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역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심위원장께서는 방심위 직원들에게 일정한 업무 태도나 지시 사항을 발표하시기도 하시지요? 직원들에게 업무를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하지요?

○증인 류희림 뭐 특별하게 제가 인솔하는 건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심위의 위원장으로서 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잘 알고 계시고 직원들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객관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지요, 직원들도?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서 그들도 공직자로서 방송의 공정한 심사에 나름대로 실무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방송위원장과 연관된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의심되는 그러한 민원들이 연달아 발생했을 때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사내 게시판이나 어떤 경로든 간에 방송심의위원장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증인 류희림 그 부분은 현재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아니, 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시고 특히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것은 헌법상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타인의 영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공정한 심판대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아는 공직자가 이렇게 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제재 결과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고 제안한 걸 그걸 고발을 합니까, 자기 직원을?

○**증인 류희림**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 민원인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도 그러한 불법·부당한 일이 있다면 공적 제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책임자가 당신이 잘되라고 당신 가족이 이런 것하고 있으니 수신제가부터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불러다가 포상을 할지언정 고발을 해요?

그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억울한지 뭐한지 사퇴를 하셨는데 심의위원장 억울한 게 많이 있지요?

○**증인 류희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왜 사퇴를 안 하십니까, 같이 사퇴하시지?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과 이정현 위원님은 이번 3분 하고 3분을 더 쓰셔야 돼요. 아시지요, 왜 그런지? 아까 3분 질의하실 시간에 참고인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5분 주면……

○**위원장 최민희** 아니, 5분을 한꺼번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 1분 하시고요.

○**최형두 위원** 그러면 그냥 묶어서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4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제가 질문할 동안에 수고스럽지만 네이버의 최 대표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너무 큰 주제를, 5개 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을 하는데 오늘 수많은 증인들, 참고인들, 글로벌 기업의 CEO를 해 놓고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참 지치지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진 주제를 가지고……

이게 사실 선진국 의회 행태에 맞지 않는, 이것들 중에 보자면 국회가…… 국회니까 와 있지만 얼마나 시간 낭비가 큽니까? 네이버 대표가 주가 올리려면…… 지금 거의 12

시간을 뺏는 셈인데 글로벌 기업 CEO한테 12시간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기업 네이버 대표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질타를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키운 국민 기업 또 일본과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있는 라인을 일본에게 뺏기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프트뱅크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월 실적 발표에서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이사회 구성상 소프트뱅크 인사가 일본 측 인사가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 소프트뱅크가 컨트롤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조정된다고 해도 크게 뭔가 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증인 최수연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형두 위원 경영권이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통합 결정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라인페이의 폐지 결정은 네이버도 동의한 겁니까?

○증인 최수연 사실 라인페이의 폐지 결정은 저희가 지난 2019년 3월에 경영 통합을 할 당시에 경영 통합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양사 간의 시너지 및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사용자 효익으로 바꿔 보자는 논의였고 그때 당시에 라인페이는 페이드아웃 하는 수순으로 시장에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냥 그에 따른 전략의 실행이라고 봐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총무성의 지침이며 이런 것의 문제가 지분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지분이 일본에 좀 더 넘겨 가느냐, 혹시 파느냐 이게 큰 이슈가 된 것은 이제 국민 기업 네이버를 일본에 뺏긴다, 윤석열 정부 때 뺏긴다 이런 프레임인데 그러면 그 절반을 넘겨준 문재인 정부 때는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조치에 대해서? 네이버의 자발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까?

○증인 최수연 그때도 지금도 저희가 경영 통합을 한 결정 그리고 지금 지분 매각을 단기적으로는 하지는 않겠다는 결정 모두 저희 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아마 지금 민주당 같은 그런 시각이었다면 이 당시에 우리 당은 ‘아니,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기업 네이버를 일본에 절반이나 팔아먹었단 말이냐’라고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당이 상당히 그런 국민적 감각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시지요? 그렇게 네이버를 그때 우리가 비판했을 때는 옳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웃습니까?

○증인 최수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민주당 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 있는 또 라인야후에 종사하는 기술자들, 이런 기술들이 지분의 정리 과정 또는 일본 기업가의 어떤 그런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뺏긴다거나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증인 최수연 그런 결정을 저희는 당연히 상장회사로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 상당히 국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내 고용은 어떻습니까?

○**증인 최수연** 말씀 주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라인플러스라는 라인야후의 한국 자회사 인데요. 당연히 라인야후와 라인플러스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현재 이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경영진들이 다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변동과 다 무관하게요.

○**최형두 위원** 우리 네이버의 가치 또 주주의 가치 또 우리 종업원,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소중히 지켜 주시고 국회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장님!

○**증인 유국희** 예.

○**김현 위원** 하루 계속 와 계셨는데 한 번도 질문 안 받으셨지요.

○**증인 유국희** 예.

○**김현 위원** 지금 월성4호기 사용후원료 저장소 냉각수 누출사건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워낙 대형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물려 있는데요. 지난 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상세조사를 한 뒤에 대외공개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언제쯤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될 것 같습니까?

○**증인 유국희**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우려하시는 목소리처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냉각수가 누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수원의 조치가 적정했는지부터 근원적인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지난 사건 보도 아래 지역과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원인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방심위원회장님!

○**증인 류희림** 예.

○**김현 위원** 아까 그 민원에 앞서 우리 김우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께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사무총장을 임명하시고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어느 단위로 받으시나요, 얼마 기간 안에? 정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는……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사무총장 또는 각 국·과로부터 받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있지요?

○**증인 류희림** 예, 실·국장, 방송통신심의국……

○**김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별도로 안 받으시나요? 전체 회의, 사무처를 통할하시는 방심위원회가 이런 긴급한 상황과 아주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증인 류희림** 예,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있어도 그 민원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 **김현 위원**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 **김현 위원** 방통위랑 다릅니까, 방심위는?

○ **증인 류희림** 저희는 그렇습니다.

○ **김현 위원** 저희는 위원들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사무처장이 담당 국·과장과 함께 와서 긴급현안이 생기면 다 보고합니다. 방심위는 보고 안 받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증인 류희림** 예, 그런 식으로 별도로 민원인과 관련된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김현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통위는 현안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국·과장과 사무총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하는데 방심위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까라고 질문한 겁니다. 민원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안 받습니까?

○ **증인 류희림** 아니요. 진행되는 사항과 언론 보도와 관련된 사안은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똑같이 드립니다, 간사님 두 분.

○ **김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앞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신다고 자꾸 얘기하고 불리한 진술은 경찰, 권의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총장과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통위 구조와 같은 방통위 설치법으로 규정되는 방심위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어느 기간 안에 받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습니까?

○ **증인 류희림**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은……

○ **김현 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매주 받으시잖아요. 월요일 오후에 받으시잖아요.

○ **증인 류희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보고를 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서 김우영 위원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안 받으셨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증인 류희림**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특정 민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보고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 위원** 아니, 저희는 받습니다. 민원실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점검을 해야지만 방통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방심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 3분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는데 ‘조금 전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가 류희림 위원장 발언으로 전해진 것이고요. 이것은 9월 27일 게시판 글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글

을 내리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류희림 위원장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뜯 경향신문 10월 10일 기사입니다. 아까 언론 보도 브리핑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 반드시 보고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10월 10일에는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책결정 참여한 것 다 이해충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감사원 결과를 정말 무시하시는군요. 202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방심위가 민원인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위원들한테 이것 회피 등 이해관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자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장경식 단장, 부속실장 등 그게 조직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 평범성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짧게 대답하세요.

새로운 서비스 제공, 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 추진했다고 했지요?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사업자 선정 실패했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종호** 이것을……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증인 이종호**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충분히 미사여구 들었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했는데 스스로 취소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청문 과정입니까? 취소 안 합니까?

그런데 우여곡절이 있네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만큼 새로운 서비스 제공, 통신비 인하 등 국민은 이익을 침해받네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계다가 서상원 대표 계시지요? 대한민국 과기정통부가 졸로 보입니다?

○**증인 서상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과기정통부장관, 직원들은…… 제가 오늘 지켜 보니까 서상원 대표가 아주 대한민국 과기정통부를 우습게 보세요.

○**증인 서상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면 반드시 불러서 대한민국 정부 우습게 본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최수연 대표께 마이크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는 것 지켜봤는데요, 최수연 대표 머릿속에는 소비자, 나는 없습니까? 주주의 이익, 기업의 이익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 지켜보는 시민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심위가 너무 한심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행태를 해서 제 질의를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다음에 반드시 여쭙겠습니다. 최수연 대표 마음에 네이버가 돈 있고

뭐 있으면 됩니까?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국희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후쿠시마 시찰단장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앞서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유국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6월 28일부터 몇 차 방류가 시작됐지요?

○증인 유국희 지금 7차 방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 방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방류는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습니까?

○증인 유국희 정확한 톤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6차까지 총 한 차례씩, 한 차례 7800t씩 방류가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산하면 여섯 차례 4만 7000t이 방류가 됐고요. 6월 28일부터 7차 방류해서 7800t이 또 방류가 됩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물론 위원장님도 그 단장으로서 같이 참여하셨고 한국 전문가가 후쿠시마 IAEA에 상주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거부당했지요?

○증인 유국희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주는……

○이정현 위원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한 창피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IAEA에 상주하는 방안도 거부당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증인 유국희 예.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IAEA와 대면회의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화상회의를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저희들이 초기에는 주당 1회로 화상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후쿠시마 핵폐수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바다로 흘러들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후쿠시마 핵폐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 유국희 저희들이 흘러들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정현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것이고 우리의 모니터링도 철저하지 못한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늘어지거나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다가 2주에 한 번,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국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시기와 방류를 멈추고 있는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위원 방류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핵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 유국희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 상주는 못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증인 유국희 예,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예, 파견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파견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저희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가는 걸로 했고요……

○이정현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지금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가거나 또는 중요할 때는 1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정현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증인 유국희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정현 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증인 유국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저는 궁금하고요. 절대로 이게 한 해 두 해 가고 나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하고 또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도 후쿠시마 핵폐수는 계속해서 바다에 방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핵폐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민 위원 하고 이훈기 위원 하시지요.

○이해민 위원 장관님께 질문 있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이해민 위원 질문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먼저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로밍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로밍을 허용해 주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연구반 운영하면서 로밍 의무 제공 관련해서 법률 해석 받으셨지요?

○**증인 이종호** 지금……

○**이해민 위원** 단답형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이해민 위원** 시간 갑니다.

○**증인 이종호** 제4이통사에 대해서 얘기인가요?

○**이해민 위원** 예.

○**증인 이종호** 임시 로밍이라고, 한시……

○**이해민 위원** 핵심은 동일한 서비스여야 한다는 거고 28GHz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로밍 이용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그 28GHz 지원되지 않는 기존 단말기 이용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이종호** 만약에 28기가를 쓴다고 하면……

○**이해민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이종호** 기존 사용자는 안 됩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28GHz 단말기 몇 대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은 없지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해민 위원** 없지요?

○**증인 이종호** 예.

○**이해민 위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정부가 사업한다고 급하게 일 저질러 놓으시고 자문받아 보니까 로밍 허용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뒷수습하고 계신 겁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아까 28기가는 경험용이고 주 서비스는 3.5 기존 망 로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5 중복투자 안 하는 것에 매리트가 있다는 건데 그 로밍 자체가 안 되는 것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업체는 옳다구나 빨대 꽂자고 달려드는 꼴이고 과기정통부는 음료수 준비 안 된 꼴이고 음료수는 누가 오더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꼴이고요.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으로 세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종호** 예, 의무……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잠깐만요.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답변 요구하신 겁니까?

○**이해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고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우영 위원님 추가질의 요청하셨지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원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6월 22일 날 국내 원전 운영 최초로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최초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증인 유국희 예.

○이훈기 위원 원인 규명 아직 안 됐지요?

○증인 유국희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훈기 위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보면 이번에 보고 시간이 19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난 5년간 56건의 사고가 났는데 평균 보고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이번에 190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초유의 사건이 났는데?

○증인 유국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고 규정이. 그 규정에 맞게 보고가 됐는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평균 56건이 20분인데 190분이면 9.5배나 걸렸다는 건데 뭔가 문제가 심각히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국희 기본적으로는 보고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방출됐을 경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증인 유국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3년 전에도 월성원전에서 부지 내 누출사고가 나 가지고 작년 12월 5일 날 최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주민들이 와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저도 갔는데, 위원장님 사퇴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퇴하라 그랬어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국희 일단 저희는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한수원의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해양으로 방출된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원전이 고리인가요? 고리원전인가요?

○증인 유국희 고리 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 1호기 원전 해체 비용이 얼마나 추산돼요? 나온 게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저희는 해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체……

○이훈기 위원 아니,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국희 한수원에서 각 호기별……

○이훈기 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증인 유국희** 추정하고 있는 해체 비용은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원전 지금 자꾸 늘리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는데 해체 비용이 아직까지 한 기도 정확히 산출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원전이 효율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정부는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정권에서, 원전 계속 지으려고.

○**증인 유국희** 해체 비용은 추산해서 나온 비용은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체 비용도 아직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증인 유국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훈기 위원** 지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국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비용과 관련해서는 추산이 되어 있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추산된 액수가, 제시를 못 하잖아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한 것 있습니까?

○**증인 유국희** 아니요, 그것은 한수원에서 추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한수원도 없어요. 제가……

○**증인 유국희** 해체 비용은 추산을 해서 그 비용을 한수원 자체적으로 이미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거기 원안위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한번 제가 봤어요. 추산돼서 아직 나온 게 없다 그랬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지금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일단 주시지요. 있다고 하셨지요, 추계비용?

○**증인 유국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주십시오.

○**증인 유국희** 예.

.....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혹시 서면보고 받으실 위원님들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고요.

○**김우영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임기가 7월 22일까지라고 그러셨지요?

○**증인 류희림**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드리세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본인은 연임을 희망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저는 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끝나고 그냥 마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증인 류희림** 그것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어떤 요로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증인 류희림**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성격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예.

초유의 일입니다, 방송심의위원장이 직원을 사법 처리 의뢰를 한 것은.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까?

○**증인 류희림** 당시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증인 류희림**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김우영 위원** 직원을 고발하는 행위는 흔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증인 류희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제가 판단해 보건대 본인이 순수한 방송 심의에 대한 업무의 공정성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출세의 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류희림** 저희는 직원을 고발한 게 아니고 불법 민원 유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 뿐입니다.

○**김우영 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나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리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은 꿈꾼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류희림**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김우영 위원** 혹시나 그런 제안이 온다면 거절하실 거지요?

○**증인 류희림** 그럴 일 없고 제가 갈 생각도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 심의의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언론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장의 의지를 현격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뜻뜻하고 공정하게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가족을 동원해서 그런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방송 공정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보수의 도덕성에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 류희림** 그 부분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일신의 욕망이나 더 높은 자리로의 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후배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본인이 뜻뜻하다면 신속하게 하기를 촉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류희림** 그것은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명이 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동원돼요. 참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분 질의하겠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계시지요?

○**증인 유국희** 예.

○위원장 최민희 6월 22일 날 월성원전에서 저장수 누출됐지요?

○증인 유국희 예, 6월 22일……

○위원장 최민희 몇 톤 유출됐어요?

○증인 유국희 한수원의 추정치는 2.3t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 몇 시에 보고받았어요?

○증인 유국희 원안위의 보고받은 시간은 8시 50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안 것은 몇 시예요?

○증인 유국희 한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수원은 본인들이 시료 분석을 해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기요, 길게 말하지 마시고요.

○증인 유국희 예.

○위원장 최민희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 유국희 7시 40분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요? 한수원이 그러면 누설 차단조치를 취한 것도 7시 삼십…… 몇 분이라고요? 53분?

○증인 유국희 차단조치는 4시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면 뭐니까? 한수원이……

○증인 유국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한수원이 7시 53분에…… 35분, 53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 유국희 7시……

○위원장 최민희 차단조치는 4시 17분에 했습니까? 그것 왜 그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아니까 차단조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증인 유국희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이 보고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한수원이 잘못 보고했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증인 유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시……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이것 언제 알았어요? 이 보고자료가 틀린 건 언제 알았어요, 말 안 되는 것?

○증인 유국희 아니, 보고자료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증인 유국희 저한테 그러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제가 답변을……

○증인 유국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최민희 한수원이……

○증인 유국희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증인 유국희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답하실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누설 차단조치를 취한 게 몇 시입니까?

○**증인 유국희** 4시 17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아까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안 게 몇 시라고 답하셨습니까?

○**증인 유국희** 해양으로, 그러니까 바깥 환경으로 방출된 것을 인지한 것이 7시 40분, 그러니까 열교환기에 있는 해수에서 시료 분석을 했더니……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그것을 지금……

○**증인 유국희**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지요. 누출 사실을 안 게 언제냐고 제가 물었고요. 누출 사실을 인지해서 차단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해수로까지 방류, 누출됐다는 것을 안 시간이 그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증인 유국희** 위원장님, 답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누설이 된 것은 해양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장수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어딘가에서는 새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 제가 알아요.

○**증인 유국희** 예.

○**위원장 최민희** 지금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안 시간, 그것 제가 정확히 물었는데 지금 헷갈리신 겁니다. 일 좀 잘해 주십시오.

○**증인 유국희** 예,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해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 아니,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준비한 것을 질의하시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모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하시고 노종면 위원님 하……

○**이정현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이정현 위원님 하시고요, 이해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정말 우리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불러 놓고 이리 갔다가 질문이 저리 갔다가 이렇게 분산되고 해서 정말 국회의 생산성도 의심받을 것 같고, 특히나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대부분 세종시에 삽니다. 지금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요령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질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밤 12시 가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스무 분 가까운 많은 위원님이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갑자기 이쪽 증인 나오라고 그랬다가 저쪽 나와라

이렇게 참 집중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증인들 특히 외부의 저 바깥에 있는 세종시에서 왔던 방통위 공무원들…… 방통위는 참 과천에 있지요.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는 과천에 있습니다. 방심위는 목동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좀 빼 주세요, 시간 좀.

또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지난번에 최장 90일 동안 보장되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90초 만에 해치우시고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 거부하고 나갔더니 그때 12시까지 해 가지고 세종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귀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뭐 숙식 제공한다 할지 이런 것도 아닐 텐데……

또 상임위를 하루 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사 간에도 그렇고 위원장님하고도 회의시간 문제라든가 이걸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펌훼하거나 이런 것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오셔서 차수 변경해서 새벽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주질의에서 카톡 대화 내용 공개하면서 장 단장님께서 위증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본인은, 저는 판단하고요. 관련해서 지난해 9월 14일 장 단장이 보고를 했다고 저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고 또 그 당일에 류희림 위원장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다른 것은 다 수사 때문에 발언 못 하겠다고 하면서 보고 안 받았다고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선택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증이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증 여부를 판단하셔서 고발 여부까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노종면 위원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 위원님, 최형두 간사 위원님, 두 분 나가서 의논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식 단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그냥 드시지요, 앉으셔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똑똑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 9월 14일 날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해 주세요.

○증인 장경식 아닙니다.

○이해민 위원 안 하셨습니까?

○증인 장경식 예.

○ 이해민 위원 안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 증인 장경식 민원인 개인정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 이해민 위원 민원인 개인정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장이 바깥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내용이지 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계십니다.

위원장께 마이크 넘기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단장이 공익제보 받고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해서 사건 은폐시켜서 위원장님이 이해충돌 회피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단장 징계 조치 안 하세요?

○ 증인 류희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해민 위원 왜지요?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 증인 류희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민 위원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이크 주십시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대질 신문처럼 돼 버렸는데요, 상사를 감싸기 위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 대시면서 위증을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법적인 위증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상사 감싸서 영웅 되지 않아요. 영웅 되려면 국민을 감싸야 되고요 공익제보자 뼈아픈 목소리 받아서 안아야 영웅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법적 위증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지금 나와서 위증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시다면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현 위원 유국희 위원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IAEA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는 방안이 거절당하고 우리 국민들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면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방문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유국희 예, 2주 간격으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 이정현 위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증인 유국희 예.

○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담 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맞지요?

○증인 유국희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화상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유국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에는 그렇게 일주일, 2주에 한 번씩 방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유국희 ‘필요할 때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우선 먼저 저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주에 한 번 화상회의 그리고 2주에 한 번 현지 파견 이렇게 하는 걸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1주의 한 번 화상회의라든가 2주의 한 번 현장 점검이 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로 다음 주로 현장 파견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정현 위원 2주에 한 번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은 맞습니까?

○증인 유국희 예,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있겠지요?

○증인 유국희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후쿠시마 현장 방문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증인 유국희 예, 다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화상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후쿠시마 핵폐수가 방류된 이후의 그 관련 자료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데이터들을 신뢰하십니까?

○증인 유국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시찰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도쿄전력이 내놓는 수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했던 일이 시료를 분석하고 그것이 데이터화돼서 대외로 공표되는 시스템까지를 다 체크한 거고요. 그 체크한 상황에서는 인적 개입으로 수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도쿄전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도쿄 특파원 할 때에도 도쿄전력의 거짓말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되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투명성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에도 2·3호기의 멜트다운 이것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련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유국희 예.

○위원장 최민희 PPT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저 3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방심위 직원들, 류희림 위원장 좀 숙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심위는 민원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입니다, 2024년 5월.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일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들께…… 그러니까 아까 장경식 단장이 알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보고 안 했다, 민원 사주 관련해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저희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종면 위원님께서 위증으로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르는 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님은 적어도, 경향신문의 10월 10일 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아주 크게 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 보도는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김현 위원이 방통위에 근무했고 저도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언론 브리핑, 위원회 관련해서 늘 하는 것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위증하고 계셨다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종면 위원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 장악 국정조사 오늘 발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장경식 단장과 류희림 위원장의 문제를 좀 더 파헤치고 취재도 더 하고 자료도 보강해서 그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으면 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두 사람이 위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무슨……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것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솔직히 양해는 안 되고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충권 위원 (손을 끊)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입니까?

○박충권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3분 드리세요.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또 기업인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 주시고 노고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월성 4호기 오염수 누출 관련돼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마저 못 하신 것 같은데, 또 누설과 누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유국희**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새기는 하는데 내부 누설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아까 미처 답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설이 발견된 것과 조치한 시간 그리고 밖으로 누출이 된 타임라인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유국희** 현재까지 파악된 그리고 한수원이 보고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수원이 당일 날 새벽 4시 17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수위가 조금씩 늦어지는, 그러니까 낮춰지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고서 이게 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막자라고 해서 차단 조치를 한 게 새벽 4시 34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샌 저장수가 바다로 나갔는지, 그러니까 해수와 섞여서 바다로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분석, 시간을 들여서 시료를 분석했고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바깥으로 나가는 해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게 7시 40분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서 원안위에 보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수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사실과 같은가 다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꼼꼼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타임라인별로 봤을 때 합리적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발견하고 초동 조치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면 그 정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더 꼼꼼히 챙겨서 정말 어느 만큼의 방사선이 누출됐는지, 국민들께는 위해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그리고 앞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실 분?

최형두 위원님하고 저 3분 하겠습니다.

원안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참 비생산적인 진행이지만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편중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다 끝난 분이라도 먼저 보내지요, 더 질문할 대상이 아니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현 위원** 그러면 저랑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오시지요.

○**최형두 위원** 질문 중인데……

먼저 질문하시렵니까?

○**김장겸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김장겸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런데 12시까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증인 요청이 된 거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김우영 위원 20분 남았어요.

○위원장 최민희 예, 40분이기 때문에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하시고 노종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지요.

방송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어떤 심의 대상인 방송사에서 누가 민원을 넣었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다녀 가지고 뭘 취재를 하고 이런 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민원인 개인정보가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대량으로 유출됐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민원 신청을 안 했더라도, 안 했다면 그건 아예 이 시비의 대상이 안 됩니까, 심의의 대상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다수가 민원을 넣었나요?

○증인 류희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관련 민원들이 당시에 한 200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잠깐만요.

스테이지엑스 대표님하고 최수연 대표님, 서상원 대표님 두 분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겸 위원님 2분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뉴스타파의 아까 봉지욱 기자뿐만이 아니네요. MBC도 막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냐, 위원장님 가족하고 친척, 지인의 직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인 류희림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제 동생이나…… 예를 들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사에 났다고 하지만 저의 처제라든지 동서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직장까지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자체가 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민원 정보가 술술 새면……

○**증인 류희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국가 민원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누가 민원을 신청한 게 이렇게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 누가 국가 민원기관을 믿고 그야말로 민원을 제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이게 수사가 지금 되기는 되고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현재 반부패수사대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원장님 조카가 미국에 이민 갔다는 것까지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고요?

○**증인 류희림** 예,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디 언론사에서 아마 취재를 했던 데, 저희 누님의 아들이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 부분을 알고 온 기자가 그 아들 이름을 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며칠 동안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가족관계 서류가 모두 통째로 그냥 다 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네요.

○**증인 류희림**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증인 류희림** 예.

○**위원장 최민희** 지금까지 방심위에서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의 동생, 방심위원장의 아들, 방심위원장의 제수, 친척이 6명 그리고 그 관계된 과거에 몸담았던 직장 동료들,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까지 이렇게 위원장의 주변 사람들이 심의 넣은 일이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방심위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아무리 류희림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 그 친척이 외국으로 이민 갔다는 얘기인데 캐나다 얘기는 왜 하십니까? 왜 본인이 누출을 하십니까? 제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감사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감사원 얘기를 제가 계속해 드려요. 왜 감사원의 권고까지 그렇게 무시를 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의 권고가……

○**증인 류희림** 아니, 위원장님, 그 감사원의……

○**위원장 최민희**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증인 류희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감사원 설명을 제가 왜 류희림 위원장한테 듣습니까? 지금……

○증인 류희림 아니, 저는 저런 권고가 왔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 사주, 청부 민원 의혹을 갑자기 민원인 유출 의혹으로 바꿔서…… 지금 김우영 위원이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원인 유출 의혹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실을 고발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민원인이, 그게 귀신이라서 날아 가지고 유출됩니까, 민원이? 그렇게 프레임 전환하실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하면 답변 안 하다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그리고 원안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 조치를 취하겠나 그러면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일 테니까 어떻게 예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더 질의할게요, 저도.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위원장 최민희 먼저 하십시오.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노종면 위원 예.

류희림 위원장님에 대한 취재가 왜 이렇게 촘촘하게 됐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특별하시고 좀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YTN 사이언스에 계시고 YTN PLUS의 대표로 계실 때 본인의 부인이 비인가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시시콜콜한 입학식, 졸업식,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학생들이 YTN을 방문했다 이런 것들이 YTN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방송이 되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보도만 수십 건이고요. 그리고 부인 교장으로 계실 때 부인 인터뷰만 십수 건이 그 YT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본인이 통제하고 있는 제작진을 동원해서, 그게 일반인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친누나 곱창집을 홍보해 주는 데 어떻게 본인이 관장하는 제작진을 보낼 수 있나요? 여기에 언론인 출신들 많으시지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있는 분들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카톡에서 ‘류희X’로 표현되어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친동생 그분의 이름이 그 직원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그 순간에 끄나풀 하나가 풀어진 겁니다. 탐사 취재들을 안 해 보셨어요?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요. 물론 유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시비를 가리세요. 그걸 가지고 탐사 보도된 내용을……

이게 지금 본질이 그것 아닌 것 다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과 그 70여 명이 단 2주 동안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 정상인일까요? 이 상황이 정상인가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민원인 신분을 가려야 하는 것과 이해충돌 보고를 안 하는 것, 이걸 섞지 마세요! 심의를 해야 되는 상임위원들이 민원인 누구인지 알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아는 그 순간에 공직자들은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걸 아는 위원장은 스스로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야지요.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 민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과 이해충돌을 알아야 되는 것을 섞어서 얘기합니까? 그런 걸 쿠엔이라고 하는 거라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기본적인 대화가 통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저희가 방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프레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왜곡 보도가 있었고 그 왜곡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방심위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사주했느냐 여부를 놓고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본질은 왜곡 보도인데 민원 사주가 본질인 것처럼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들이 MBC를 제외하고는 다 사과를 했고요. 왜곡 사실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과징금도 물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을 사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민원인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 역시 동기야 어떻게 됐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느 한쪽에서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류희림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증을 했다고 민주당 위원들께서 확신에 차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반론은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 위증한 사실도 없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된 뒤에, 본인이 위증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의심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신가요?

○증인 류희림 맞습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질의하시면 5차 질의로 넘어갑니다. 5차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저.

예,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것 참, 결국 제가.....

○위원장 최민희 중단하시면 중단됩니다.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제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사는 공무원들 좀 일찍 보냈으면 싶었는데 방심위 문제 때문에 질의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걸 아주 끌까지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반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기정통부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 빼고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 빼고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장차관이 안 가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장관님 가시라고요.

○최형두 위원 아, 다 가시라고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과기부장관님 아까 제가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일찍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잘 돌아가십시오.

같은 얘기를 너무 하시니까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최형두 위원 늦게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인신문 절차 이런 것도 조금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위원장 최민희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앞으로 10시부터 하시지요, 오전 10시부터. 그러면 이런 일 없지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아무튼 좀 생산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좀, 그래야 생산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오늘 늦게, 우리 본회의도 2시였는데 4시 넘어서 들어오시더구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간사들끼리 회의 시작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회의 운영을 과기부 따로 방통위 따로 이런 것 둘이 의논하시고요.

그리고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오늘 방심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방송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증인 류희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방송 심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제기가 됩니까?

○증인 류희림 대략 방송·통신 심의 합쳐서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은 몇만 건이 되지만

보통 방송 심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한 오륙십 건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련 무슨 문제 되는 보도들이 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것을 옹호하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현안과 관련된 저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사적이해에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나도 몰랐는데 오늘 죽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회피를 요구한 방심위 내부 게시글이 있었는데 저걸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방심위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표할 수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민감한 민원인 정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23년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위원장이 뉴스타파 심의를 회피하라고 요구하는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직무상 지득한 정보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민감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것인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뉴스타파 심의 안건과 관계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증인 류희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참 이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한 달에 수만 개씩, 수천 개씩 들어오는 방송 심의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경중이 큰 문제, 사회적으로 경중이 큰 문제를 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이 신속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 이런 문제, 더구나 내부적으로 민원인들의 정보 또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렇게 사내 게시판에 올려 가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방송 심의를 저해하고 특정한 방송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질의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증인 류희림** 예.

○**위원장 최민희** 취임하자마자 유교단체 찾아가셨지요?

○**증인 류희림** 예, 성균관을 찾아갔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 왜 찾아갔어요, 갑자기 방심위원장이?

○**증인 류희림** 제가 성균관 재단이사였고 그리고 성균관 관장님을 제가 아는 사이라서 마침 오셨다 하길래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동생이 유교단체 관련 일 하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목이 뭐니까, 동생이 하는?

○증인 류희림 영남선비문화수련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 방심위원장이 성균관 갈 때 동생도 같이 갔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권한을 사적으로 하시네요.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동생 같이 갔고……

○증인 류희림 영남선비문화수련원에 동생은 사무총장으로 있고 저는 이사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됐는데 왜 거기를 찾아가시냐고요, 동생 대동하고? 이사면……

○증인 류희림 성균관장님께 인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노종면 위원 사실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뭐 곰창집에 대해서요?

○증인 류희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것은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지요. 제 질의 시간에 왜 노종면 위원님하고 합니까?

○증인 류희림 곰창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곰창집…… 저기요, 곰창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증인 류희림 아니,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곰창집, 누나의 곰창집이라는 것 아닙니까?

○노종면 위원 곰창전골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곰창전골집. YTN에 보도 나간 적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YTN에 나간 게 아니고 YTN 채널이……

○위원장 최민희 YTN 관련 자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 식당은 대구·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의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YTN 채널에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노종면 위원 그래서 본인 제작진을 보내요? 진짜 참다 참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명한 맛집이라서 누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제가 노종면 위원님이 온몸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이제 12시가 다 돼 가서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럼시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이제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마쳤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여러분, 제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형두 위원 다 같이 가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왜 이러세요.

○최형두 위원 안 끝났습니까?

○김현 위원 우리는 앉아 있어도 되고요, 중인은 먼저 나가시라고.....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는데 위원들은 잠깐 남으셔서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것 정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8인)	김우영 박민규 조인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4)
	○최형두 박정훈 박충권	국민의 힘(3)
	이준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10인)	○김현 노종면 이정현 이훈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5)
	김장겸 신성범 이상휘 최형두	국민의 힘(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해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7인)	◎정동영 김 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3)
	박충권 신성범 최수진	국민의힘(3)
	이해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7인)	박민규 이정현 정동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4)
	◎김장겸 이상휘	국민의힘(2)
	이준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회임

참고인 명단

참고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 이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2024. 7. 2.(화) 16: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민원 관련 질의

○출석 위원(20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출석 증인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최병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정책국장)

이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황성욱(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장경식(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이평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서상원(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최수연(네이버 CEO)

○출석 참고인

봉지욱(뉴스타파 기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6월 25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6월 26일 회부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이상 5건 6월 28일 회부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2024. 6.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이상 4건 7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6.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이상 9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2)

6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 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4586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